

Re-Opening



Re-Opening

OPERA GALLERY

Preface

저희는 더 새롭고, 넓고, 모던한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이전한 오페라 갤러리 서울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한 이 대담한 전시회에 미술 애호가들과 컬렉터 분들을 초 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페라 갤러리 서울의 새 공간이 갖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번 전시는 3층에 걸쳐 세 개의 주제들을 따 르는 여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갤러리에 위치한 'Black Room'에 전시될 'Masters on Paper(종이 위에 거장들)'는 마크 샤갈, 호안 미로, 파블로 피카소에서부터 알렉산더 칼더, 자오 우키에 이르기까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원작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갤러리의 또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Contemporary Curated Artists (현대 미술가 기획전)'는 오늘날 현대 미술계에서 발견되는 창의적인 기법들과 주제들을 부각시키며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동인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안젤름 레일르의 시각적, 형식주

의적 효과들,백남준의 창조적인 매스미디어 설치물, 마 놀로 발데스의 상징적 모티프, 만화의 영향을 받은 무 라카미 다카시와 쿠사마 야요이의 팝 유니버스(Pop universe), 또한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원초적인 에너 지가 한데 모여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서 우리는 신진 태국 아티스트인 시티퐁 로차이송이 보 여주는 최신 세대의 작품들까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의 세번째 주제는 화가이자 조각가인 로베르 콩바스의 단독전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랑스 자유 구상(Figuration Libre) 운동의 선구자인 그는 그래피티, 락앤롤, 펑크, 만화 영화 등의 하위문화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그림은 만화 같은 이미지와 대담한 색채를 역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캔버스를 통해 신랄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변화된 오페라 갤러리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이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모험에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 디앙

설립자, 회장 오페라 갤러리 그룹

강현승

오 페 라 갤 러 리 서 울 이 사 회 고 문

In celebration of Opera Gallery Seoul's relocation to a new, larger and more exclusive gallery space, we are delighted to invite art lovers and collectors to discover our exciting opening exhibition.

Spanning three floors and making the most of the presentation potential of Opera Gallery Seoul's superb new space, the exhibition was compiled as a journey of three distinct parts.

In the 'Black Room' of the Gallery, 'Modern Masters on Paper' offers visitors the unique opportunity to view original works on paper by some of the most established and revered names from modern art history, from Marc Chagall, Joan Miró and Pablo Picasso to Alexander Calder, Zao Wou-Ki and Keith Haring among others.

Moving forward, 'Contemporary Curated Artists' is a dynamic and thought provoking display that showcases some of the eclectic themes and techniques found on in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 We bring together the dazzling optical and formal

effects of Anselm Reyle, the multimedia installation of Nam June Paik, the expressive iconic motifs of Manolo Valdés, the Manga influenced Pop universe of Takashi Murakami and Yoshitomo Nara and the raw energy of Georg Baselitz, through to the latest generation of artists, notably the young, emergent Thai artist Sittiphon Lochaisong, among a whole host of other suprises.

Finally, the third part of our opening exhibition focuses on the painter and sculptor Robert Combas in a small solo presentation of his works. A pioneer of the French 'Figuration Libre' movement, Combas was inspired by the graffiti, rock 'n' roll, punk and comic book sub-cultures. His energetic paintings are distinguished by their paradoxical use of cartoon imagery and bold colours to make acute, energetic and biting, social commentary.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the brand new Opera Gallery Seoul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e continued expansion of our creative adventure.

Gilles Dyan Founder and Chairman Opera Gallery Group

Chloe Kang Board Advisor of Opera Gallery Seoul

 $_{2}$

Modern Masters on Paper

Jean Dubuffet 장뒤뷔페 (1901-1985)

1901년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태어난 Jean Dubuffet 는 '아르 브뤼(Art Brut)'의 창시자로 평가 받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과 제도화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예술 계를 떠나겠다고 두 번씩이나 공표했던 Dubuffet는 1942년부터 예술에만 전념했다. 아이들, 죄수, 정신병 환자들처럼 미적 기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그의 예술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전 후(戰後) 프랑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Jean Dubuffet의 작품에는 회화, 콜라주, 조각 및 기념물 등이 있다. 베니스의 Palazzo Grassi, 런던의 Tate Gallery, Centre Georges Pompidou, 그리고 뉴욕의 Solomon R. Guggenheim Museum 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렸다. 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Dubuffet는 색연필과 펠트 펜으로 종이에 연작들을 그렸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 작품들은 '아무도 살 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마음의 여행'이었다. 활동 초기 부터 다양한 색깔과 콜라주 기법을 자주 사용했기 때 문에, 한층 친밀감이 드는 이러한 작품들에는 색깔과 형식에 대한 그만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그대로 남 아 있다.

Born in Le Havre, France in 1901, Jean Dubuffet is considered the founding father of Art Brut. Rejecting traditional fundamentals of art and institutionalised culture, Dubuffet twice declared to leave the world of art before devoting himself full time in 1942. His interest in works of art produced by people working outside of aesthetic norms, such as children, prisoners and psychiatric patients, became the core of his artistic philosophy. He remai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ost-war French artists in history. Dubuffet's oeuvre includes paintings, collages, sculptures and monuments. Retrospectives of his works have been held at the Palazzo Grassi in Venice, the Tate Gallery in London,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and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During the last ten years of his life, Dubuffet made a series of works with coloured pencil and felt-tip pen on paper. In the artist's own words, these works were 'excursions of the mind into no man's land.' Expanding his colour palette and revisiting collage techniques from earlier periods in his career, these more intimate drawings embody the artist's signature structural approaches to colour and form.

Site avec deux personnages, 10 septembre 1981 Acrylic on paper . $50 \times 67 \text{ cm I } 19.7 \times 26.4 \text{ in}$

Provenance
Fondation Dubuffet, Paris
Waddington Custot,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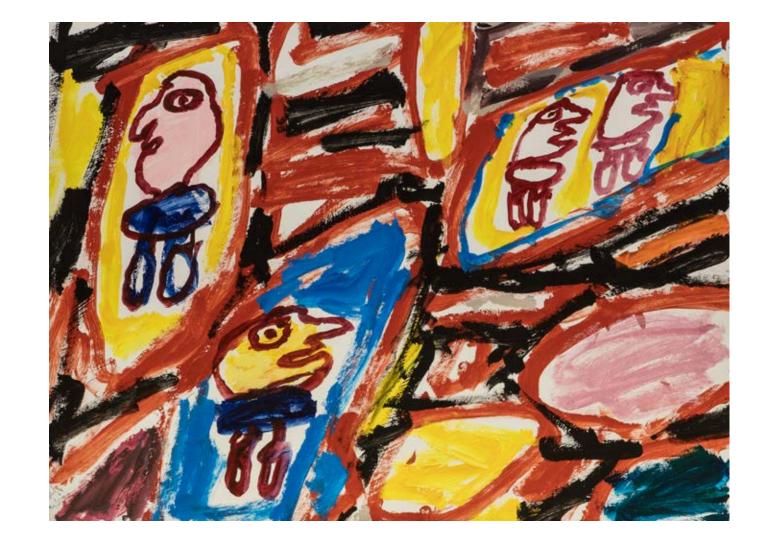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XXXIV: Psycho-sites,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1984, no. 293, p. 81







Site avec quatre personnages, 20 août 1981

Acrylic on paper . 50 x 67 cm I 19.7 x 26.4 in

Provenance

Fondation Dubuffet, Paris
Waddington Custot, London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XXXIV: Psycho-sites,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1984, no. 261, p. 72 Site avec quatre personnages, 31 août 1981

Acrylic on paper . 50 x 67 cm I 19.7 x 26.4 in

Provenance
Fondation Dubuffet, Paris
Waddington Custot, London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XXXIV:

Psycho-sites,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1984, no. 275, p. 76

Alexander Calder 알렉산더 칼더 (1898-1976)

Alexander Calder는 189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조각가인 Alexander Stirling Calder의 아들이었고, Alexander Milne Calder의 손 자였다.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기계 공학 학위를 받은 후, Calder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가 1923년에 뉴욕시의 Art Students League에 입 학했다. 이곳에서 미니어쳐 서커스단을 처음 만들었 고, 혁신적인 추상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 다. Calder는 섬세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형상이 공기 흐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매달아놓거나 세워놓은 '움직 이는' 조각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Marcel Duchamp는 이것을 일종의 '모빌'이라고 불렀다. 그는 1952년 베 니스 베엔날레의 조각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1954년 Pittsburgh International에서는 조각 부문 1등을 차지 했다. Calder는 자신의 조각 작업과 병행하여 1953년 에는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과 슈(gouache) 기법으로 연작을 그렸다. 그림을 빨리 그 릴 수 있기 때문에, Calder는 과슈 기법을 통해 자신의 조각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를 즉흥적으로 구 현하면서 나중에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각 형태 의 구상(angular figuratism)을 활용한다. 기하학적 형 태를 기반으로 하는 Calder의 선(線)은 자연의 풍부함 과 다양성,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분위 기를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전달한다. 그의 작품은 전세 계 주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Alexander Calder was born in Philadelphia, USA in 1898. He was the son of Alexander Stirling Calder and grandson of Alexander Milne Calder, both well-known sculptors. After obtaining his mechanical engineering degree from the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Calder worked various jobs before enrolling at the Art Students League in New York City in 1923. It was here that he finished his first miniature travelling circus and began making a name for himself as an innovative abstract sculptor. Calder is known as the originator of the suspended or standing kinetic sculpture made from delicately balanced shapes and set in motion by air currents; a device Marcel Duchamp named 'mobiles'. He was awarded the main prize for sculpture at the Venice Biennale in 1952 and first prize for sculpture in the 1954 Pittsburgh International. Calder created a series of paintings in gouache during a yearlong stay in Aix-en-Provence, France in 1953 in parallel to his sculptural practice. Painting quickly, the gouache allowed Calder to guickly translate the vocabulary of his sculpture into something more immediate, using an angular figuratism, which often served as inspiration for later sculpted works. Presenting a synthesis of geometric forms, Calder's lines convey, with considered simplicity, the abundance and diversity of nature and the spontaneous impressions it evokes. His works are held in almost every major museum collection worldwide.

Cattails and Yellow Moon, 1968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Gouache on paper . $74.6 \times 110.5 \text{ cm}$ I $29.4 \times 43.5 \text{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Certificate

This 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Calder Foundation, New York, under application number A06029





Untitled, 1953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Gouache on paper . $48.3 \times 63.5 \text{ cm} + 1.19 \times 25 \text{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Rome Sotheby's, New York, 25 September 2013, lot 316 Private collection, New York

Certificate

This 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Calder Foundation, New York, under application number A18039

Marc Chagall 마크 샤갈 (1887-1985)

1887년 벨라루스 '비테부스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 어난 Marc Chagall은 가장 존경 받는 20세기 미술가 중 한 사람이다. 야수파, 입체파 및 초현실주의파와 잘 어울리던 Chagall은 독창적인 색깔과 환상적인 도상학 (圖像學)을 이용하여 전통 방식과 다른 자신만의 상징 적 스타일을 개발했다. 젊은 시절에는 상트페테르부르 크와 파리를 오가면서 공부와 작업을 병행한 Chagall 의 몽상적인 색조와 기발한 피사체(예를 들면 말과 바이 올리니스트)는 당시 입체파의 작품과 구별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동유럽 시골의 목가적인 마을에서 보냈던 어 린 시절에서 영감을 얻었고, 유대교와 유대 문화, 러시 아 전통문화, 성경, 음악, 연극 및 그의 부인 Bella에 대 한 사랑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Chagall은 이러한 영감 의 원천을 자신의 작품에, 캔버스에, 종이에, 때로는 판 화용 에칭(etching)에 담아냈다. 다작(多作)으로도 유 명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파리의 Opéra de Paris 또는 뉴욕시의 Metropolitan Opera에 랜드마크로 장식되 어 있다. 1973년에는 프랑스 '니스'에 Musée National Marc Chagall이 들어섰고, Musée du Luxembourg, 뉴욕의 Jewish Museum, 런던의 Tate Modern, 파리 의 Grand Palais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그 의 회고전이 열렸다. 그의 작품들은 전세계 주요 공공/ 민간 컬렉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orn in 1887 in the city of Vitebsk in Belarus to Jewish parents, Marc Chagall is one of the most admired artists of the 20th century. Rubbing shoulders with Fauvism, Cubism and Surrealism, Chagall developed his own iconic style separately from conventions with a distinctive colour palette and fantastical iconography. Spending his early years studying and working between Saint Petersburg and Paris, Chagall's dreamlike hues and whimsical subjects, such as the horse and the violinist, distinguished his work from the Cubist artists of the time. His oeuvre drew inspiration from his childhood in the pastoral countryside of Eastern European villages, as well as from Jewish religion and culture, Russian folklore, the Bible, music and theatre and his love for his wife Bella. Chagall wove these sources of inspiration into his artworks - on canvas, on paper and occasionally in etchings for printing. In addition, his works can also be found adorning landmarks such as the Opéra de Paris and the Metropolitan Opera in New York City. The Musée National Marc Chagall in Nice was inaugurated in 1973 and retrospectives of his work have been held in major museums worldwide including the Musée du Luxembourg; the Jewish Museum of New York; the Tate Modern in London, the MoMA in New York and the Grand Palais in Paris. His works are found in the most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in the world.

L'Acrobate rouge, 1963-1964

Signed on the lower right

Watercolour, pastel, gouache and India ink on Japan paper . 38.2 x 28.2 cm | 15 x 11.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Christie's, London, 8 February 2007, lot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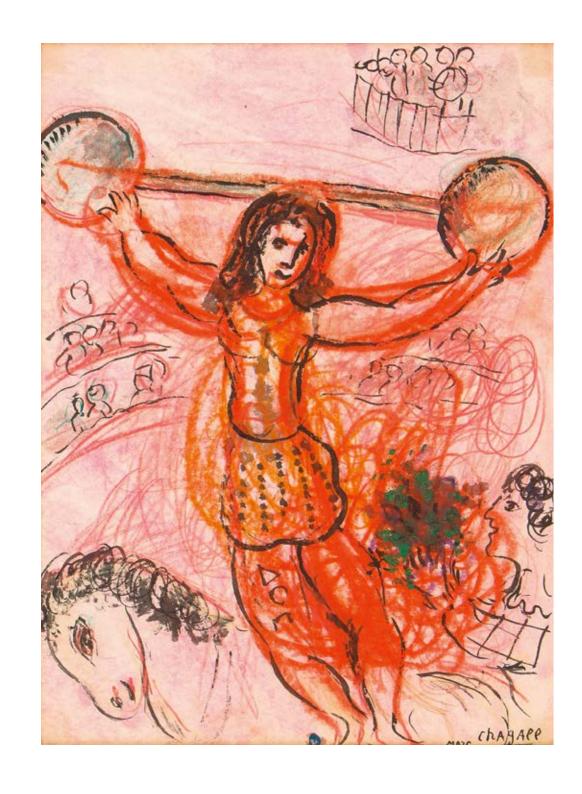
Private collection, Hong Kong

Exhibited

Hommage à Chagall, Takashiyama Art galleries, Nihonhashi, 1986, no. 67 (titled as Le Cirque rouge)

Certificate

The Comité Marc Chagall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Pablo Picasso 파블로 피카소 (1881-1973)

Pablo Picasso는 1881년에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이 후 주로 프랑스에서 생활했다. 그는 근대기의 가장 존경 받고 영향력 있는 미술가로 평가 받고 있다. Pablo Picasso의 작품 에는 화가, 조각가, 판화가 및 도예가로서의 천부적 재능이 고 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끊임없이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을 개 발하고 실험하면서 예술가 운동을 주도하여 20세기 미술과 문화의 혁신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Picasso는 어린 시절부 터 그림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었다. 7세 때부터 아버 지로부터 정식 미술 교육을 받았다. 그는 1900년에 처음 파 리를 방문했고, 1901년 후반에 귀국했다. 이 시기를 그의 '청 색 시기(Blue Period)'라고 하는데, 1904년까지 지속되었다. 1906년까지는 그의 '장미빛 시기(Rose Period)'라고 부른다. 이후 Picasso의 작품은 아프리카 원시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 았다. 이 시기에 그의 걸작 '아비뇽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이 발표되었다. 이때 심취했던 형식적 관념론은 이 후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분석적 입체 주의는 Picasso가 Georges Braque와 함께 발전시킨 화법이 다. 두 화가들은 사물을 따로 구분하여 이것을 자신들만의 형 태로 분석했고, 이것은 절단한 종이 조각들을 붙여서 하나의 구성을 표현하는 '종합적 큐비즘'으로 발전했다. 순수미술에서 콜라주를 처음 사용한 것이다. 1930년대에는 미노타우로스 (minotaur;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가 그의 작품 모 티프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과의 만남 이 미노타우로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미노 타우로스를 자신들의 상징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페 인 내전 당시 독일군의 '게르니카' 폭격을 묘사한 Picasso의 가 장 유명한 작품인 Guernica에도 미노타우로스가 등장한다. 생 을 마감할 때까지, Picasso의 후기 작품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 과 표현 방식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Pablo Picasso 작품 전시회는 자주 열렸고, 전세계 주요 미술관, 재단 및 민간 컬렉 션에서 그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Pablo Picasso was born in Málaga, Spain in 1881. He spent most of his adult life in France. He is celebrated as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influential artists of the modern era. Pablo Picasso's artworks utilise his innate abilities as painter, sculptor, engraver and ceramist. He spent his career perpetually developing and experimenting with a range styles and techniques, pioneering artistic movements tha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wards revolutionary developments in twentieth century art and culture. Picasso showed a passion and a skill for drawing from an early age. From the age of seven, he received formal artistic training from his father. He made his first trip to Paris in 1900 and returned in late 1901. This period defined the beginning of his 'Blue Period 'which continued until 1904. His 'Rose Period' followed until 1906 after which Picasso work became heavily influenced by African primitivism. This period is highlighted by his revolutionary masterpiece, the painting Les Demoiselles d'Avignon. Formal ideas developed during this period lead directly into the Cubist period that follows. Analytic cubism is a style of painting Picasso developed with Georges Braque. Both artists took apart objects and analysed them in terms of their shapes, this then developed in to Synthetic Cubism, in which cut paper fragments were pasted into compositions, marking the first use of collage in fine art. During the 1930s, the minotaur became the common motif in his work. His use of the minotaur came partly from his contact with the Surrealists, who often used it as their symbol, and it appears in Picasso's Guernica, arguably Picasso's most famous work, his depiction of the German bombing of Guernica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Picasso's final works were a mixture of styles, his means of expression in constant flux until the end of his life. Pablo Picasso's exhibitions have been extensive, with paintings in key museums, foundations and private collections worldwide.

Tête de femme, 21 July 1970 Signed and dated on the upper left Coloured ink on paper . 32.3×25 cm | 12.7×9.8 in

Provenance

Galerie Louise Leiris, Paris O'Hana Gallery, London Samuel J. & Ethel LeFrak, New York

Literature

Christian Zervos, Pablo Picasso, vol. 32, œuvres de 1970, Éditions Cahiers d'Art, Paris, 1977, no.235, ill. p.76



Joan Miró 호안미로 (1893-1983)

Joan Miró는 1893년에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Miró는 근 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 고 있다. Joan Miró의 예술 세계는 수 십 년 동안 많은 미술가들과 애호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사로잡 았다. 젊은 시절부터 Miró는 미술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 고, 불과 7세 때에 데생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La Llotja의 순수미술학원에 입학했고, The Cercle Artístic de Sant Lluc에도 다녔다. 191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1921년에는 파리로 건너가 몽빠르 나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 다. 파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초현실주의 대가 중 한 사람인 André Breton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Miró는 초현실주의 그룹에 동참하게 되었다. 정식 회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 적 표현에 대한 또 다른 형식과 학파에 대해 연구할 수 있 었다. 처음에는 정물화와 풍경화를 그렸지만, 파리로 이주 하면서 그의 기술과 스타일과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다다이즘과 접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Miró는 자신의 작품이 특정 운동으 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과감한 색채, 생명형태적 형식, 기하학적 형태, 반(半)추상적인 사물 등은 점차 그의 작품을 대표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되었다.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그의 사후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미술가의 작품들은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었고, 탄생 100주년을 기 념하여 유명 미술관들이 그의 회고전을 대규모로 진행했 다. Miró는 지금도 현대 미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Calder, Pollock 및 Rothko와 같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 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학계와 소장가들 모두 존 경하는 Miró의 작품들은 계속 걸작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Joan Miró was a Spanish artist born in 1893. Miró is recognis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ists of the modern era. Miró grew up in a family of craftsmen who immersed him in art and creativity. From a young age. Miró displayed a keen interest in art and began attending drawing classes at the tender age of 7. Later he was enrolled into the fine art academy at La Llotja, followed by The Cercle Artístic de Sant Lluc. In 1918, Miró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Barcelona after which he moved to Paris in 1921, so that he could be part of the art community that has gathered in Montparnasse. It was during his stay in Paris that he encountered André Breton;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Surrealism, who lead Miró to join the surrealist group - though not as an official member so that he could explore other forms and school of artistic expression. Though Miró initially painted still life and landscape, this move to Paris proved to be a pivotal change regarding his technique, style and composition. Exposed and receptive to influences from Fauvism to Cubism, Surrealism, and Dada, Miró refused to let his art be categorised into a precise movement. Boldly coloured strokes, biomorphic forms, geometric shapes, semi-abstract objects, gradually came to define Miró's signature style represented in his art. During Miró's lifetime and after, the works of this internationally acclaimed artist have exhibited extensively around the world with many large retrospective exhibitions at prestigious museums devoted to his works notably on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Miró has continued to exert his influence in modern art, notably in the works of Abstract Expressionist artists such as Calder, Pollock. and Rothko. Sincerely appreciated by art academic and art collectors, Miró's works remains highly sought after.

Untitled (from Grafikmappe Hochschule St. Gallen), 1967

Signed on the lower right

Colour lithograph, edition of 150 . 66 x 50.5 cm | 26 x 19.9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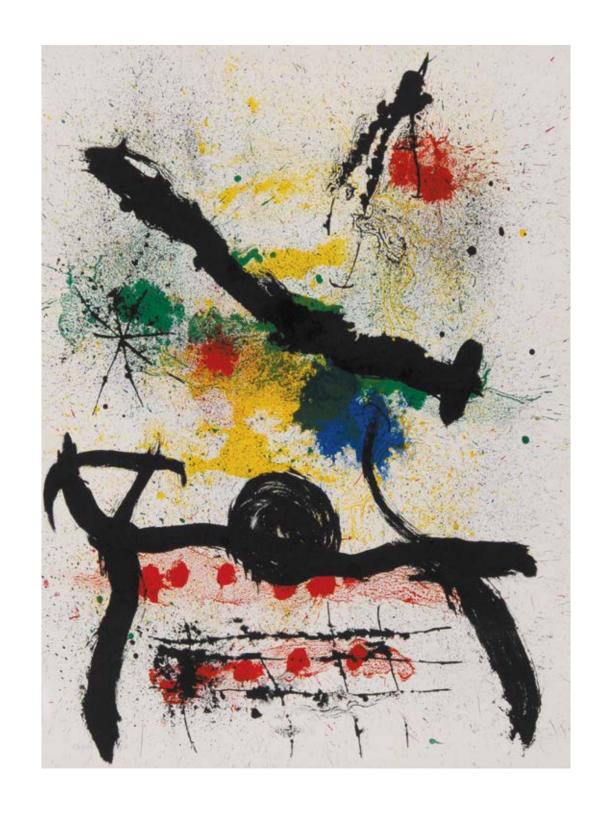
Provenance

German Auktionshaus, Zurich, 4 June 2013, lot 243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Patrick Cramer, Miró Lithographs III, Maeght Publisher, Paris, 1967, no. 111



Zao Wou-Ki 자오우키 (1920-2013)

Zao Wou-Ki는 1920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그는 전후 미술계의 거장으로 동 시대 중국 화가 중 가 장 잘 알려진 화자 중 한 사람이다. Zao Wou-Ki는 전 통적인 중국 문인화에 현대적 회화 기법을 활용했다. 1948년 파리로 건너간 Zao는 중국의 흔적을 버리고 중국 풍경화의 영향을 받은 Paul Klee의 스타일로 그 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54년, Zao는 중국 미술과 혼 재되어 대비되는 색깔과 서정적인 추상화이라는 독특 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풍경을 유 럽 서양화의 렌즈로 보는 것 같았다. Zao는 객관적으 로 동양의 영향을 받은 미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을 좋아하지 않아 먹(ink) 사용을 가급적으로 피하면서 캘리그라픽 스타일로 유화를 그렸다. 중국의 전통적인 풍경화와 마찬가지로, Zao의 그림은 장엄한 경치들이 모여 자신의 내부 에너지가 드러나듯 유연함과 투명함, 그리고 품위 있는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Zao Wou-Ki was a Chinese artist born in Beijing, China in 1920. He was a master of postwar art and one of the most collected Chinese painters of his generation, Zao Wou-Ki applied Modernist art making techniques to traditional Chinese literati painting. Zao moved to Paris in 1948, rejecting his Chinese heritage, and immediately began painting a style influenced by Paul Klee, who in turn was influenced by Chinese landscape painting. By 1954, Zao had developed a unique aesthetic that was marked by contrasting colours and lyrical abstraction which merged Chinese art, as viewed through the lens of European abstraction, with traditional Chinese landscapes. Zao remained wary of objectively Eastern-influenced art and avoided using ink for much of his career, preferring to work with oil paint in a calligraphic style. Like traditional Chinese landscape painting, Zao's paintings function as fragments of a larger scene, possessing fluidity, transparency, and a graceful luminosity representative of the artist's interior energies.

Untitled, 2003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India ink on paper laid down on paper . $117.6 \times 97 \text{ cm}$ I $46.3 \times 38.2 \text{ in}$

Provenance

Marlborough Gallery, Madrid Private collection, Paris Artcurial, Paris, 3 June 2014, lot 76 Private collection



Fernand Léger 페르낭레제 (1881-1955)

Fernand Léger는 1881년 프랑스 '아르장탕'에서 태 어났다. 1897년부터 1899년까지 레제는 건축 교육을 받았다. 자신의 천직이 미술이라고 생각한 그는 1902 년-1903년 School of Decorative Art에 입학했고, Académie Julian에서도 공부했다. Salon d'Automne 에서 열린 Cézanne 회고전에 동참했던 1907년은 Léger에게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자신의 그림 에 데생과 기하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09년, 파 리로 건너간 Léger는 이곳에서 Robert Delaunay, Lipchitz, 그리고 Marc Chagall과 같은 아방가르드 운 동을 주도한 대가들을 만났다. 이 기간에 Léger는 자 신의 그림에 원통 형태를 주로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방 식으로 Cubism을 해석하기 시작했다(Tubism). 1차 세 계대전에 참전한 1920년부터, Léger의 그림은 뚜렷한 외곽선과 골고루 섞은 색깔을 이용하여 한층 기계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1927년, 그의 스타일은 한층 유기적 이면서도 불규칙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1945년부터 Léger는 자신의 그림에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 건들을 핵심 피사체로 삼는 등,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그 리는 일이 많아졌다. 그림 이외에도, Léger는 영화 프로 젝트, 도서 삽화, 벽화, 스테인 글라스 창, 모자이크, 도 자 조각, 심지어는 극장 무대 설계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Léger의 작품은 여러 곳에서 전시되었고, 전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Fernand Léger was a French artist born in 1881 in Argentan, France. Léger trained as an architect from 1897 to 1899. Knowing his calling was in art, he enrolled at the School of Decorative Art in 1902-1903 while he also studied at Académie Julian. A turning point in Léger's art was in 1907 when he attended the Cézanne retrospective at the Salon d'Automne whereby he began to focus on drawing and geometry in his paintings. In 1909, Léger moved from Paris where he met leaders of the avant-garde movement such as Robert Delaunay, Lipchitz, and Marc Chagall, During this period, Léger began with his interpretation of Cubism typified with the predominance of cylindrical forms (Tubism) in his paintings. From 1920 after his military service in World War I, Léger's paintings took on a more mechanical approach with strong contours and evenly blended colours. In 1927, his style evolved to adopt a more organic and irregular form. From 1945, Léger paid a greater emphasis on the theme of the common man, such as the use of everyday objects in his paintings as the core subject. Besides painting, Léger was also involved in film projects, book illustrations, murals, stain glass windows, mosaics, ceramic sculptures and even set designs for the theatre. Léger's work has been exhibited widely and is held in many prestigious museum collections worldwide.

Étude pour la façade de l'église Notre-Dame-de-Toute-Grâce (plateau d'Assy, Haute-Savoie), circa 194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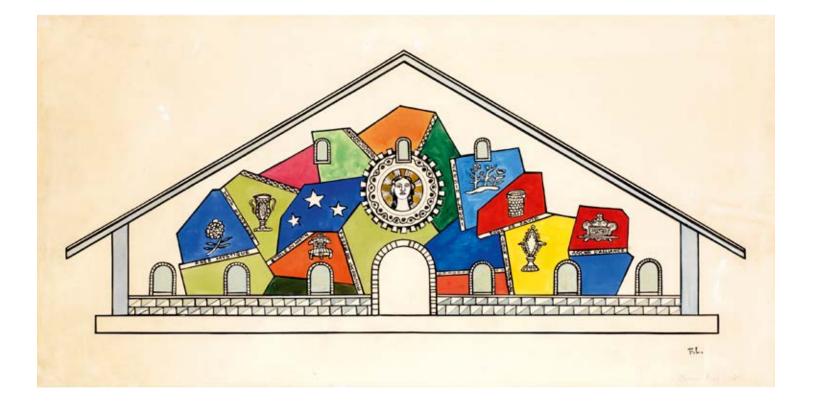
Stamped 'F.L' and inscribed 'Mosaïque Assy (étude)' on the lower right Gouache and India ink on paper . $48.5 \times 97.8 \text{ cm}$ I $19.1 \times 38.5 \text{ in}$

Provenance

Sotheby's, New York, 14 May 1992, lot 146
Private collection
Tajan, Monaco, 21 July 2012, lot 31
Private collection

Certificate

Irus Hansma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sim 23

Fernando Botero 페르난도 보테로 (b.1932)

Fernando Botero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 다. 조각과 데생과 그림을 이용하는 Botero의 작품들 은 조형 미술에 가깝지만 추상적이다. Botero는 콜롬 비아 '메데인'의 식민지 시대 교회와 도시 생활에 남 아 있는 바로크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52 년, 일단의 미술가들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여행한 Botero는 그곳에서 잠깐 체류하다 마드리드로 이동하 여 Academia de San Fernando에서 미술을 공부했 다. 1953년, 그는 파리로 자리를 옮겨 루브르 박물관에 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머물렀다. 이후 1953 년부터 1954년까지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생활하면서 Quattrocentro와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조각과 그 림에 대해 연구했다. 1958년, Botero는 '보고타'에서 9회 Salón de Artistas Colombianos 상을 수상했다. 1960년, 그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14년 동안 살면서 작 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에 정착했 지만, 매년 2달 동안은 메데인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의 독특한 경험 덕분에 'Boterismo'라는 이름으로 알 려진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완성되었다. 'Boterismo' 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소 과장되게, 체격이 건장하 게 묘사되어 풍자적이고 유머러스 하면서도 친근한 느 낌을 준다. Fernando Botero의 전시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해외 주요 박물관, 기업 및 개인 소장가들이 수집한 작품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소개 되었다. 2012년, Contemporary Sculpture Award 에서 International Sculpture Center's Lifetime Achievement 상을 수상하면서 Fernando Botero의 조각 작품도 인정을 받았다.

Fernando Botero was born in Medellín. Colombia.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Paris, France. Botero's art is figurative yet abstracted, utilising sculpture, drawing and painting. Although relatively sheltered from fine art influences at an early age, Botero was heavily affected by the Baroque style of the colonial churches and the city life of Medellín, Colombia. In 1952, Botero travelled with a group of artists to Barcelona, where he stayed briefly before moving on to Madrid where he studied art at the Academia de San Fernando. In 1953, he moved to Paris for a year, where he spent most of his time studying in the Louvre, and then lived in Florence, Italy from 1953 to 1954, studying the painting and sculpture of the Quattrocentro and Renaissance masters. In 1958. Botero won the ninth edition of the prestigious Salón de Artistas Colombianos in Bogotá. In 1960, he moved to New York where he lived and worked for 14 years. More recently Fernando Botero has settled in Paris. France but returns home to Medellín for two months each year. His unique range of experience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his unique signature style, known as 'Boterismo', where figures are depicted with robust, enlarged and exaggerated volume to satirical, humorous or affectionate effect. Fernando Botero's exhibitions are high profile and have featured worldwide with works collected by many major international museums, corporations and private collectors. In 2012, Fernando Botero's sculpture was acknowledged when he received the International Sculpture Center's Lifetime Achievement in Contemporary Sculpture Award.

La Toilette, 2009

Signed on the lower right Watercolour on paper . $106 \times 74 \text{ cm} + 41.7 \times 29.1 \text{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Contemporary Curated Selection

André Brasilier 앙드레 브라질리에 (b.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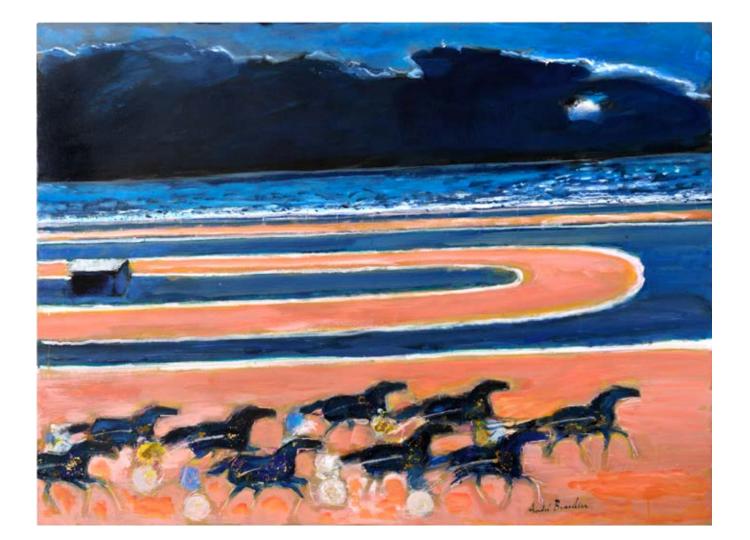
André Brasilier는 1929년 프랑스 '사뮈르' 미술가 집 안에서 태어났다. André Brasilier는 현재 프랑스 파 리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캔버스에 그린 유화인 Brasilier의 작품은 표현적이고 조형적이 다. Brasilier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20세 가 되던 해에 파리로 건너가 École des Beaux-Arts 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1952년, André는 Florence Blumenthal Foundation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다 음 해 23세의 나이에 그는 Premier Grand Prix de Rome을 수상하면서 이태리 로마에 있는 Académie de France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André Brasilier 의 그림에는 일본 판화의 힘과 평온함도 느껴지면서 표 현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나타나지만, 그 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의 세련된 구성 은 다양한 주제와 모티프, 특히 말과 자연과 인물이 자 주 등장하는데, 선명한 색상으로 피사체의 순간적인 동 작을 정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André Brasilier 의 그림은 삶과 사랑과 자연과 친밀하고 깊게 교감하 는 모습을 포착한다. André Brasilier는 전시회를 많 이 열었는데 1980년에는 1950년~1980년에 발표한 100개의 작품에 대한 첫 번째 회고전을 Château de Chenonceau에서 열었고, 1988년에는 코트다쥐르 앙 티브의 Musée Picasso-Château Grimaldi에서 회고 전을 열었다. 이후 2005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 르크의 유명한 State Hermitage Museum에서, 그리 고 2007년에는 독일의 Museum Haus Ludwig für Kunstausstellungen Saarlois에서 회고전을 열었다.

André Brasilier was born into an artistic family in Saumur, France in 1929. André Brasilier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Paris. France. Brasilier's artworks are expressive and figurative, made primarily in oil paint on canvas. Brasilier possessed a natural inclination towards painting from an early age, and at twenty years old, he went to Paris to study art at the École des Beaux-Arts. In 1952 André received a grant from the Florence Blumenthal Foundation, and the following year, at the age of 23, he won the Premier Grand Prix de Rome, entitling him to study painting at the Académie de France in Rome, Italy. Whilst André Brasilier's paintings reflect the influence of Expressionist artists alongside the strength and serenity of Japanese print making, he has retained an idiosyncratic aesthetic. His stylised compositions feature a range of themes and motifs, notably horses, nature and the figure, each handled with luminous, liminal and emotional subjectivity. André Brasilier's paintings capture an intimate, deep and enchanted communion with life, love and nature. His exhibitions have been extensive. His first retrospective of one hundred artworks from 1950-1980 was exhibited at the Château de Chenonceau in 1980 and a retrospective exhibition at the Musée Picasso-Château Grimaldi in Antibes. the French Riviera, was compiled in 1988. He has since been honoured with major retrospectives at Russia's renowned State Hermitage Museum in Saint Petersburg in 2005 and at the Museum Haus Ludwig für Kunstausstellungen Saarlois in Germany in 2007.

Courses en nocturne, 2016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 97 x 130 cm | 38.2 x 51.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Manolo Valdés 마놀로 발데스 (b.1942)

Manolo Valdés는 194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미국 뉴욕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 을 하고 있다. Valdés의 작품은 추상과 구상이 혼재한다. 그 는 데생, 회화, 콜라주, 조각 및 판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다. 1964년, Valdés는 사회 정치적 분위기와 미술 자체의 역사에 의문을 던지기 위해 팝 아트를 활용하는 미 술 단체 Equipo Crónica를 결성하기 위해 Rafael Solbes, Joan Antonio Toledo 등과 힘을 합쳤다. 1981년 해당 단 체가 해산된 후, Valdés는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 술가로 다시 태어났다. Manolo Valdés의 작품은 스페인의 예술적 유산, 특히 바로 앞 세대 화가들인 Manolo Millares, Antonio Saura와 Antoni Tapies가 주도한 Informalismo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Rembrandt, Goya, Picasso, Matisse 및 Rubens와 같은 유럽의 거장들을 포함하여 Velázquez 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역사적 걸작으로 언급되 는 Valdés의 작품들은 친숙한 이미지를 다시 살려내면서 지 적으로 새롭게 비틀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한층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표현주의적이면서 규모가 크고 극단 적일 정도의 촉감이 살아있다. Manolo Valdés의 회화와 조 각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추상적이 면서 세부적인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지만, 투박한 콜라주에 물감을 아낌없이 칠하여 바로크 이미지에 원시적인 분위기 가 연출된다. 그의 전시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열리고 있으 며, 1965년 밀란의 Lissone과 Biella에서 수상한 상을 비롯하 여, 도쿄에서 열린 제2회 International Prints Biennial에서 은상 수상, 리스본 Bridgestone Art Museum에서 수상, 발 렌시아에서 Alfons Roig Award 수상, 스페인에서 National Award for the Fine Arts 수상, 바그다드에서 2년 마다 열리 는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Plastic Arts에서 수상, 그 리고 1993년에는 베네주엘라에서 Medal of the Order of Andrés Bello를 수상했다. Manolo Valdés의 조각과 회화 는 많은 찬사를 받았고 대중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뉴욕의 Metropolitan Museum of Art 및 파리의 Centre Georges Pompidou 등 전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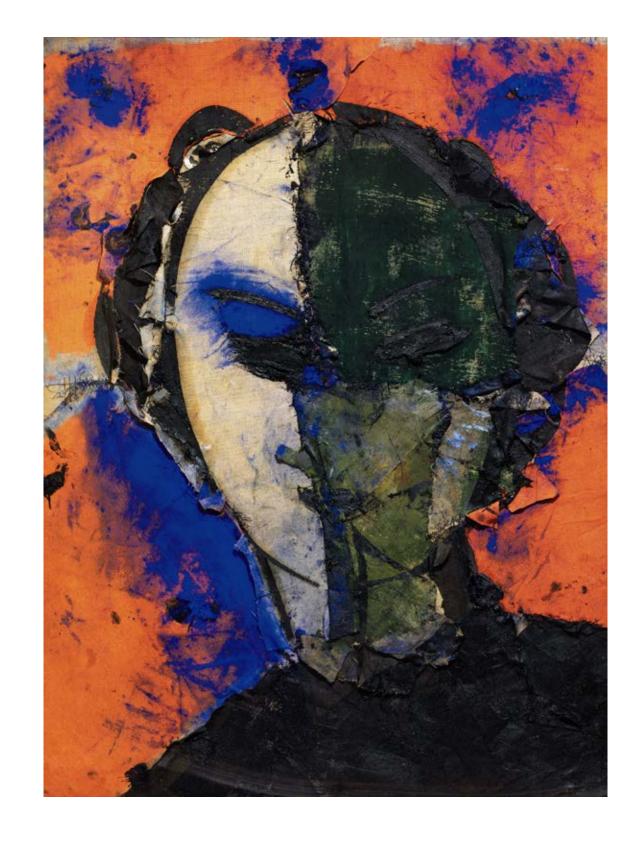
Retrato con fondo naranja, 2007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Oil on burlap \cdot 222.3 x 166.4 cm \cdot 87.5 x 65.5 in

Provenance

Marlborough Gallery, New York
Private collection

Manolo Valdés was born in Valencia. Spain in 1942.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between Madrid, Spain and New York, USA. Valdés' artworks combine abstract and figurative elements. He has mastered multiple media including drawing, painting, collage, sculpture and printmaking in the making of his art. In 1964, Valdés collaborated with Rafael Solbes and Joan Antonio Toledo to form Equipo Crónica, an artistic group that utilised Pop Art to question the socio-political climate and the history of art itself. After the group dissolved in 1981, Valdés reinvented himself emerging as one of the foremost living Spanish artists. Manolo Valdés' artworks draw heavily upon Spanish artistic heritage, particularly the Informalismo of his immediate predecessors Manolo Millares, Antonio Saura and Antoni Tàpies, but more specifically from the work of Velázquez, alongside other European masters including Rembrandt, Goya, Picasso, Matisse and Rubens. Often referencing historical masterpieces, Valdés creates expressive, large-scale, extremely tactile artworks, which revitalise familiar images, creating intellectual swerves that bring significant works out of their original context. The figure's in Manolo Valdés paintings and sculptures are often inflated, abstracting form and minimising detail, while incorporating an abundance of paint applied with rawness alongside crude collage material, giving the Baroque image a primitive twist. Manolo Valdés' exhibitions are extensive and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Lissone and Biella in Milan in 1965, the silver medal in the second International Prints Biennial in Tokyo, an award from the Bridgestone Art Museum in Lisbon, the Alfons Roig Award in Valencia, the National Award for the Fine Arts in Spain, a medal from the bienniale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Plastic Arts in Baghdad and in 1993 the Medal of the Order of Andrés Bello in Venezuela. Manolo Valdés' sculptures and paintings have met with wide-scale critical acclaim and public recognition, featuring in important museums collections worldwide, including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and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Fiori, 2015

Bronze, unique piece . 124 x 180 x 71 cm | 48.8 x 70.9 x 28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Galerie Forsblom, Helsinki
Private collection, Europe

Georg Baselitz 게오르그 바젤리츠 (b.1938)

Georg Baselitz는 1938년 동독에서 태어났다. 그는 독일 의 화가, 판화가 겸 조각가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 년대 초반까지 초기 작품에도 당시 유행하던 추상화에 대 한 반감이 드러나있다. Georg Baselitz의 초기 작품은 상 징적인 인체, 장기, 성적(性的) 강박관념과 충격적인 경계 (境界)의 모습을 보여준다. 1960년 중반부터, 그는 몇 가 지 인물 형태, 상처가 있거나 다친 모습을 주로 그렸다. 그 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비의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 들처럼 이러한 인물들을 현대적 영웅이라는 세련된 형태 로 표현했다. 1969년부터 Baselitz는 피사체를 거꾸로 그 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티프를 표면에 그리고 자신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 1975년에 힐데스하임 근처의 '데른부르크'로 거처를 옮긴 후, Baselitz는 카를수루에의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에서(1977년-1982년), 그리고 서(西) 베를린의 Hochschule der Bildenden Künste에서(1983 년-1988년)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금도 자신의 주요 표현 수단으로 매체 자체를 보여주지만, 1980년대 에 들어서면서 주제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1979년, Baselitz는 자신의 첫 번째 기념비적인 목재 조각을 시작했 는데, 자신이 그리는 인물과 머리에 전형적인 강렬함을 표 현한 기본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다듬지 않은 기술을 활용 했다. 현대 미술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랫 동안 자신만 의 스타일로 작업했던 그는, 독일의 젊은 신표현주의 화가 들('Neue Wilden')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1980년대부 터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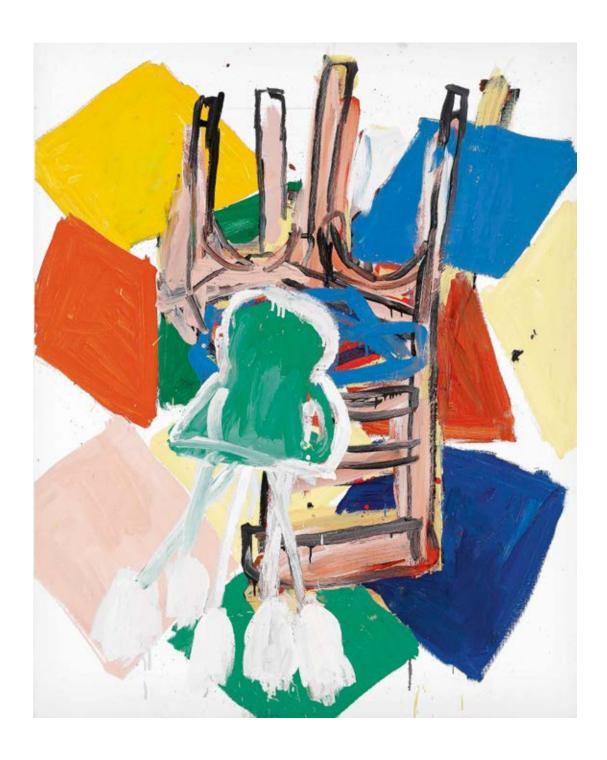
Georg Baselitz was born in East Germany in 1938. He is a German painter, draughtsman, printmaker, and sculptor. Even in his early work of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Baselitz rebelled against the dominance of abstract painting. The imagery in his early works consisted of symbolic bodies, organs. sexual obsessions and shocking boundaries. From the mid-1960s he concentrated on several figure types, sometimes portrayed as scarred or wounded. He presented them in a stylised form as modern heroes, as people from a mythical land beyond our questionable civilisation. From 1969 Baselitz painted his subjects upside down. Through this method, the possibility of stressing the realisation of the motif as a painted surface and the form as his primary concern. After moving in 1975 to Derneburg, near Hildesheim, Baselitz served as professor of painting at the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in Karlsruhe (1977-82) and at the Hochschule der Bildenden Künste in West Berlin (1983-88). Although he continued to present the medium itself as his primary vehicle of expression, in the 1980s he again gave greater weight to subject-matter. In 1979, Baselitz began work on his first monumental sculptures in wood, for which he employed an elemental and deliberately unpolished technique that gave his figures and heads an archetypal forcefulness. Having worked for many years against the mainstream of contemporary art, by the 1980s he had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through his influence on the young German Neo-Expressionist painters referred to in Germany as the 'Neue Wilden'.

DAS MOTIV: 1950, 14 May 1988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centre,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Oil on canvas . $162 \times 130 \text{ cm} + 63.8 \times 51.2 \text{ in}$

Provenance

L.A. Louver Gallery, Los Angeles
Private collection, Los Angeles
Private collection, London
Sotheby's, London, 29 June 2010, lot 228
Private collection, London
Sotheby's, London, 13 February 2013, lot 207
Private collection, London



Yves Klein 이브 클레인 (1928-1962)

1928년에 태어난 Yves Klein은 전후 유럽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미술가 중 한 사람이었고 프랑스에서 시작된 '누보 리얼리즘(Nouveau Réalisme)'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다. 누보 리얼리즘은 미술 비평가 Pierre Restany이 1960에 처음 주도한 운동이었다. Klein은 무엇보다 파란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IKB)'는 Klein을 트레이드마크가된 밝은 청색을 의미한다. 선(禪)과 기타형이상학적 철학의 영향을 받은 Klein은 자신의 청색 그림이 순수 관념(pure idea)와 비슷한 무형(無形)무한(無限)의 공간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Klein은 "청색에는 차원(次元)이었고 차원을 넘어서지만, 다른 색들은 그렇지 않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했다. Klein의 작품들은 여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전세계 주요 민간/공공 컬렉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Born in 1928, in Nice, France, Yves Klei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tists in post-war European art and a key figure in the French artistic movement Nouveau Réalisme, which was founded in 1960 by the art critic Pierre Restany. Klein is known above all for his blue monochrome paintings, which were rendered in International Klein Blue, a bright blue pigment that was to become the artist's trademark. Influenced by Zen and other metaphysical philosophies, Klein believed his blue paintings opened onto an immaterial and infinite space that was akin to a pure idea. As the artist once famously said, "Blue has no dimensions, it is beyond dimensions, whereas the other colours are not". Klein'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numerous museums and is part of important private and public collections across the world.





Left: Table Monogold™

Gold leaf, glass, Plexiglas, wood and steel 38 x 100 x 125 cm l 15 x 39.4 x 49.2 in

Provenance
Archives Yves Klein, Paris

Above: Table Bleu Klein™

International Klein Blue pigment, glass, Plexiglas, wood and steel $38 \times 100 \times 125 \text{ cm}$ I $15 \times 39.4 \times 49.2 \text{ in}$

Provenance
Archives Yves Klein, Paris

Robert Indiana 로버트 인디애나 (b.1928)

1928년 미국 인디애나주 뉴캐슬에서 태어난 Robert Indiana의 본명은 Robert Clark로, 미국 예술계의 거 장이다. 주로 팝 아트(Pop Art)에 전념했던 그는 '아상 블라주 아프(Assemblage Art)'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 을 했다. 어린 시절에 Indiana는 여러 가정을 전전했는 데, 이러한 일시성과 비(非)일관성은 예술가로서의 그 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6년에 뉴욕으로 다 시 들어온 그는 항상 머리 속에 맴돌던 '고향'이라는 주 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름을 Robert Indiana 로 개명했다. 1965년 MoMA(뉴욕 현대미술관)의 휴관 을 알리는 인쇄 이미지로 처음 제작된 Robert Indiana 의 LOVE만큼 그를 대표하는 팝 이미지는 없다. 1960 년대 이상주의를 보여주고 에로틱하면서도 종교적이고 자전적 의미가 담겨 있는 상징물 LOVE는 누구나 다가 갈 수 있지만 어렵기도 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현 대 문화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다. 1965년 처음 소개된 이후 LOVE는 수많은 형식으로 변 형되었는데 워싱턴 DC의 National Sculpture Garden 에서는 스페인어로, 예루살렘의 Israel Museum에서는 히브리어로 옮겨놓았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랑이란 주제의 보편성을 강 조면서 '말과 언어'의 힘이라는 Indiana의 주요 주제 중 하나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대담하여 머 리 속에 남는 이미지로 유명한 그의 작품들은 팝 아트 세대의 상징이 되었다. 뉴욕의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워싱턴 DC의 National Gallery of Art,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독일 쾰른 의 Ludwig Museum, 중국의 Shanghai Art Museum, 그리고 예루살렘의 Israel Museum에 그의 작품들이 전 시되어 있다.

Born Robert Clark in Newcastle, Indiana, USA in 1928, Robert Indiana is a preeminent figure in American art. Associated mostly with the Pop Art movement, Indiana also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ssemblage Art. Indiana spent his childhood moving from home to home, a temporality and inconsistency that had a strong influence on his identity as an artist. After relocating to New York in 1966, the artist adopted the last name Indiana as a statement about the concept of home, a subject that has persisted throughout his career. Few pop images are more recognisable than Robert Indiana's LOVE, originally designed as a print image for the MoMA holiday card in 1965. Adopted as an emblem of 1960s idealism and full of erotic, religious and autobiographical meaning, LOVE is at once accessible and complex, an iconic symbol of hope that has become an intricate icon of contemporary culture. Since its inception in 1965, LOVE has been proliferated onto countless formats and renderings worldwide, including a reproduction in Spanish for the National Sculpture Garden in Washington D.C. and in Hebrew for the Israel Museum in Jerusalem. Its ubiquity worldwide emphasises the universality of the subject and explores one of Indiana's central themes on the power of words and language. Renowned for simple, bold, memorable images, Indiana's works have become some of the most iconic of the Pop Art generation and have been collect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and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New York, the National Gallery of Art in Washington D.C.,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the Ludwig Museum in Cologne, Germany, the Shanghai Art Museum in China and the Israel Museum in Jerusalem.

Love (Gold face - Blue sides), 1966-2000

Stamped with the artist's signature, numbered and dated inside the E Polychrome aluminium, edition of 6 + 4 AP . $91.5 \times 91.5 \times 45.5$ cm | $36 \times 36 \times 18$ in

Provenance

The Morgan Art Foundation, Geneva



 $_{
m 39}$

Keith Haring 키스해링 (1958-1990)

Keith Haring은 1958년 펜실베니아 '리딩' 외곽의 작 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월트 디즈니와 닥 터 수스(Dr. Seuss)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10 대 시절에는 소설가 윌리엄 버로스 작품에 심취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피츠버그의 Ivy School of Professional Art에 입학했지만, 2학기만에 자퇴하고 뉴욕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그는 상업 미술 세계 밖 에서 크게 붐을 일으키던 대안예술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하철 공공미술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1980년대에는 Club 57이라는 예술 나이트클럽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Andy Warhol, Madonna, Jean-Michel Basquiat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 으면서 성공 가도에 들어섰지만, Haring의 작품에는 당 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그대로 담겨있다. 자신 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던 그의 작품은 1980년대 에이 즈와 뉴욕시의 뒷골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性)과 죽음과 전쟁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Haring은 에이 즈 합병증으로 31세에 사망했다. 사망 이후, Haring은 주요 회고전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의 그림은 20세 기 후반의 뉴욕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시대정신'으로 널 리 알려졌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동료 예술가 Jean-Michel Basquiat와 Kenny Scharf도 Haring과 마찬 가지로 지하철과 길거리에 그리는 화려하고 우스꽝스러 우면서도 관습을 타파하는 그래피티에 관심이 많았고, 이들 세 사람은 미술과 음악과 패션이 어우러진 아름다 움을 추구했다.

Keith Haring was an American artist born in 1958 in a small town outside of Reading, Pennsylvania. As a child he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drawings of Walt Disney and Dr. Seuss, and as a teen by the beat writings of William S. Burroughs. He was enrolled in the Ivy School of Professional Art in Pittsburgh shortly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dropping out after two semesters to move to New York City. There he became associated with the thriving alternative art community developing outside the commercial art world. He first received public attention with his public art in the subway, and by the 1980s was organising exhibitions at the arts nightclub Club 57. Propelled to quick success with the help of influential figures such as Andy Warhol, Madonna and Jean-Michel Basquiat, Haring's work nonetheless expressed pertinent social and political themes at the time. Openly gay, his work was heavily impacted by the AIDS epidemic and the underground street culture of New York City in the 1980s, with sexuality, death and war being central themes to his oeuvre. Haring died at age 31 of AIDS-related complications. Since his death he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major retrospectives, and his imagery has become a widely regarded visual Zeitgeist of New York City in the late 20th century. Fellow emerging artists Jean-Michel Basquiat and Kenny Scharf shared Haring's interest in the colourful, absurdist and transgressive graffiti art of the subways and city streets, and the three often explored an aesthetic that combined images of art, music and fashion.

Untitled, 1984

Household paint and marker pen on chipboard . 122 x 122 cm I 48 x 48 in.

Provenance

Now Gallery, New York Bonhams, London, 2 July 2014, lot 47 Ressle Gallery, New York Private collection, USA

Exhibited

New York, Now Gallery, Group Show, 1985



Takashi Murakami 다카시 무라카미 (b.1962)

Takashi Murakami는 1962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현 재는 도쿄와 뉴욕시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Tokyo University of the Arts에서 공부했고, 1986년에 순 수미술 학사 학위, 1988년에 석사 학위, 그리고 1993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에 도쿄에 '히로뽕' 공장을 세웠 고, 이 공장은 후에 미술 제작 및 관리 회사인 Kaikai Kiki(怪 怪奇奇)가 되었다. 2분법적 문화계(예술과 상업)에서 모든 비판을 받아야 하는 '피뢰침'을 자처하는 Murakami는 '예술 가란 세상의 경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교한 고전 화법(畵法) 기술을 팝, 애니메이션, 오타쿠(otaku)적 상상력을 하나로 모아 자신만 의 '슈퍼플랫(Superflat)' 스타일로 표현하는 Murakami는 미적 문제와 문화적 영감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반(反) 이상향'이라는 주제와 병행하여, 그는 초월(超越)과 계몽(啓 蒙)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시 되살려내고 있다. 소위 말하 는 일본의 '괴짜들'(서구 낭만주의 전통에 대응하는 집단으 로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초기 근대기의 예술가들)이 좋아 하는 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인 주제를 다룬다. Murakami는 오롯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들의 대담하면서도 생동감 있 는 유산(遺産)을 보여주려고 한다. Murakami의 작품은 미 국 보스턴의 Museum of Fine Arts, 일본 도쿄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프랑스 파리의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영국 런던의 Serpentine Gallery, 미국 LA 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미국 뉴욕의 Brooklyn Museum,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Museum für Moderne Kunst, 스페인 빌바오의 Guggenheim, 프랑스의 Château de Versailles, 카타르의 Qatar Museum Authority, 이태 리 밀란의 Palazzo Reale, 일본 도쿄의 Mori Art Museum, 미국 시카고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및 노르웨 이 오슬로의 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 등 수많은 개인전 및 그룹전에 전시되었다.

Takashi Murakami was born in 1962 in Tokyo, Japan.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Tokyo and New York City. He studied at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where he received his B.F.A. in 1986, M.F.A. in 1988, and Ph.D in 1993. He founded the Hiropon factory in Tokyo in 1996, which later evolved into Kaikai Kiki, an art production and art management corporation. A lightning rod of cultural dichotomies, Murakami believes the artist to be one who perceives and represents the borders between worlds. Combining refined classical painting techniques with a supercharged mix of Pop, animé, and otaku imagery in his distinctive 'Superflat' style. Murakami moves freely within an ever-expanding field of aesthetic issues and cultural inspirations. Parallel to the dystopian themes, which pervade his work, he recollects and revitalises traditional narratives of transcendence and enlightenment. Mining religious and secular subjects favoured by the so-called Japanese 'eccentrics' (non-conformist artists of the Early Modern era widely regarded as counterparts of the Western Romantic tradition). Murakami situates himself within their legacy of bold and lively individualism in a manner that is entirely his own and of his time. Murakami's work has been featured in many solo and group exhibitions worldwide, including the Museum of Fine Arts in Boston, USA,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Tokyo, Japan,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in Paris, France, the Serpentine Gallery in London, England,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Los Angeles, USA, the Brooklyn Museum in New York, USA, the Museum für Moderne Kunst in Frankfurt, Germany, the Guggenheim in Bilbao, Spain, Château de Versailles in France, Qatar Museum Authority in Qatar, Palazzo Reale in Milan, Italy, Mori Art Museum in Tokyo, Japan,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Chicago, USA and the 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 in Oslo, Norway.

Blue Flower, 2013

Signed and dated on the reverse $\mbox{Acrylic and platinum leaf on canvas} \ . \ 79.5 \ x \ 57 \ cm \ I \ 31.3 \ x \ 22.4 \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rivate collection



Yoshitomo Nara 요시토모 나라 (b.1959)

Yoshitomo Nara는 1959년에 일본 '히로사키'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도쿄에서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Nara는 Aichi Prefectur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그리고 독일 뒤셀도르프의 Kunstakademie를 졸업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은 Nara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Takashi Murakami가 시작한 일본 미술계의 '포스트모던 슈퍼플랫' 운동에 동참했다. Murakami와 마찬가지로 Nara는 일본 만화를 활용하고 있다. Roy Lichtenstein과 같은 미국 팝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데,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Nara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천박할 정도로 유아적인 모습은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984년 이후, Nara는 세계 곳곳에서 4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Yoshitomo Nara was born in 1959 in Hirosaki, Japan.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Tokyo, Japan. Nara graduated from the Aichi Prefectur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and from the Kunstakademie in Düsseldorf, Germany. Nara's upbringing in post-World War II Japan profoundly affected his art. He belongs to the postmodern Superflat movement of Japanese art founded by Takashi Murakami. Like Murakami, the artist uses Japanese manga and cartoons reminiscent of American Pop artists such as Roy Lichtenstein and his use of comic book drawings and techniques. The superficially childish preoccupations depicted in Nara's oeuvre are sometimes interpreted as a fear of adulthood. Since 1984, Nara has participated in nearly 40 solo exhibitions around the world.

Right and Left, 1990

Signed in Japanese and dated on the reverse Acrylic on canvas . $22.1 \times 22.1 \text{ cm} + 8.7 \times 8.7 \text{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Asia Sotheby's, Hong Kong, 6 October 2013, lot 972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Yoshimoto et al., Yoshitomo Nara: The Complete Works 1984 - 2010: Volume 1, Bijutsu Shuppan Sha, Tokyo, 2011, p. 69



Marc Quinn 마크퀸 (b.1964)

Marc Quinn은 196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현대 미 술가로, 지금도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조 각, 설치 및 회화 등 다양하다. Quinn은 인체, 유전학, 정체성, 환경 및 미디어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과연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 엇인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피, 빵, 꽃, 대리석, 스테인레스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Sir John Soane's Museum, Tate, National Portrait Gallery, Fondation Beyeler, Fondazione Prada 및 South London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Marc Quinn은 Sarah Lucas와 Damien Hirst도 동참했던 Young British Artists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았던 그는 2004년 트라팔가 광 장에서 열린 첫 번째 Fourth Plinth 프로젝트를 주관 했고, 여기에 자신의 작품 Alison Lapper Pregnant 를 전시했다. 자신의 피로 그린 자화상 Self(1991년-현 재)는 2009년 Fondation Beyeler에서 열린 회고전 의 주제였다. 런던의 Tate Modern, 런던의 National Portrait Gallery, 파리의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암스테르담의 Stedelijk Museum, 오슬로 의 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 리 스본의 Berardo Collection Museum, 몬트리올의 Musée d'art contemporain de Montréal, 뉴욕의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그리고 뉴욕 의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Quinn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Marc Quinn is a contemporary artist born in 1964 in London, England where he still resides. His work includes sculpture, installation and painting. Quinn explores 'what it is to be human in the world today' through subjects including the body, genetics, identity, environment and the media. His work has used materials that vary widely, from blood, bread and flowers, to marble and stainless steel. Quinn has been the subject of solo exhibitions at Sir John Soane's Museum, the Tate Gallery,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Fondation Beyeler, Fondazione Prada and South London Gallery. The artist was a notable member of the Young British Artists movement, which included Sarah Lucas and Damien Hirst. Quinn is internationally celebrated and was awarded the commission for the first edition of the Fourth Plinth in Trafalgar Square in 2004, for which he exhibited Alison Lapper Pregnant. Quinn's notorious frozen self-portrait series made of his own blood, Self (1991-present) was subject to a retrospective at Fondation Beyeler in 2009. Quinn is represented in several museum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Tate Modern, in London,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the Musée d'Art Moderne in Paris, the Stedelijk Museum in Amsterdam, the 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 in Oslo, the Berardo Collection Museum in Lisbon, the Musée d'art contemporain de Montréal,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an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Endless Column (Micro Cosmos), 2008

Signed, dated and numbered under the base White painted bronze, edition of 7 . $69 \times 21 \times 23$ cm | $27.2 \times 8.3 \times 9.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rivate collection





Sphinx, 2006

Titled on the lower centre,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Watercolour on paper . 153 \times 101 cm | 60.2 \times 39.8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Damien Hirst 데미안 허스트 (b.1965)

Damien Hirst는 1965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다. 1988년 Goldsmiths College 재학 시절, 그는 '이스트런던' 에서 열린 학생 전시회 Freeze를 주관했다. Hirst는 이 전 시회에 젊은 예술가 여러 명을 초대했고, 1990년대 현대미 술을 새롭게 정의한 이들은 나중에 Young British Artists (YBAs)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1991년, Hirst는 Woodstock Street Gallery에서 In and Out of Love라는 타이틀로 그 의 첫 번째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 수 백 마리의 살아 있는 열대 나비들이 전시회장을 날아다녔고, 이들 중 일부는 벽 에 매달려 있는 흑백 캔버스에서 부화했다. 1992년, 그는 Saatchi Gallery에서 열린 획기적인 Young British Artists 전시회에 동참했다. 이 전시회에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작품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 능성(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을 전시했다. 이것은 포름알데히드로 가 득 찬 유리 탱크 안에 보전되어 있는 상어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같은 해, 그는 Tate Gallery Turner Prize 후보에 올랐고, 1995년에 마침내 이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Hirst 의 작품 대부분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제약 화학물질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인 무수한 점(spot)들을 배 열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점' 회화라고도 부른다. 다른 하 나는 일명 '회전(spin)' 회화로, 회전하는 판 위에 캔버스를 올려 놓고 그 위에 물감을 부어 원심력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약장(medicine cabinet)'이라는 작품에서 Hirst 는 각종 약, 수술 도구 및 의료 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새 로운 형태의 조각 작품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포름 알데히드로 보전한 동물들이 담겨 있는 '탱크(tank)'는 살아 있는 생물들의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조 각 작품이다. Hirst의 모든 작품에는 아이러니한 유머가 담 겨 있고, 현대 문화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을 던진다. 2015년 10월, Hirst는 런던에 Newport Street Gallery라는 자신의 예술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자신 의 작품은 물론 개인 소장품과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Damien Hirst was born in Bristol, England in 1965. While still a student at Goldsmiths College in 1988, he curated the now renowned student exhibition Freeze held in East London. In this exhibition, Hirst brought together a group of young artists who would come to define cutting-edge contemporary art in the 1990s and later get known as the Young British Artists (YBAs). In 1991, Hirst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Woodstock Street Gallery, entitled In and Out of Love in which he filled the gallery with hundreds of live tropical butterflies, some of which hatched from the monochrome canvases that hung the walls. In 1992, he was part of the groundbreaking Young British Artists exhibition at the Saatchi Gallery. In this show, he exhibited his now famous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a dead tiger shark preserved in a glass tank of formaldehyde. The same year he was nominated for the prestigious Tate Gallery Turner Prize, a coveted award he was finally awarded in 1995. For the most part, Hirst's paintings have taken on two forms. One is an arrangement of colour spots with titles that refer to pharmaceutical chemicals, known as 'Spot' paintings. The second, his 'Spin' paintings, are created by centrifugal force, when Hirst places his canvas on a spinning plate and pours the paint as they spin. In the medicine cabinet pieces Hirst redefines sculpture with his arrangements of various drugs, surgical tools and medical supplies. Finally, his tank pieces, containing dead animals preserved in formaldehyde, are sculptures that directly address the inevitable mortality of all living beings. All of Hirst's works contain an ironic wit and also question the role of art in contemporary culture. In October 2015, Hirst opened his own art space the Newport Street Gallery in London, where he exhibits his own work as well as his personal art collection and favourite artists.

Skull Spin Painting (Created at Damien Hirst Spin Workshop), 2009

Birst Hirst blindstamp and stamped with signature and incription: this painting was made by / to celebrate the opening / of Damien Hirst. Requiem / at the PinchukArtCentre / on / Damien Hirst (stamped signature)

Acrylic on paper . $71 \times 50.8 \text{ cm}$ I $28 \times 20 \text{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Rago, New Jersey, 16 November 2013, lot 717



Anselm Reyle 안젤름레일르 (b.1970)

Anselm Reyle은 1970년 독일 '투빙겐'에서 태어난 독일의 미술가이다. 현재는 베를린에서 생활하고 있다. Anselm Reyle의 작품은 모더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모더니즘의 전통을 차용하고 비판하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Reyle의 추상 조각과 그림은 형광색, 주조(鑄造)된 사물, 포일, 글리터(glitter), 거울 등반짝이는 흔한 재료를 사용한다. 초기 추상화가 Otto Freundlich의 영향을 받은 Reyle은 Jackson Pollock과 Barnett Newman의 혁신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하드엣지(Hard-Edged stripes) 형식의 줄무늬와 추상표현주의의 자연스러운 붓놀림을 의식적으로 보여준다. 2011년, Reyle은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Dior의 패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Anselm Reyle의 작품은 해외 여러 컬렉션에서 전시되었다.

Anselm Reyle is a German artist born in Tubingen, Germany in 1970. He is currently based in Berlin. The work of Anselm Reyle is intimately linked to Modernism, borrowing, critiquing, and reinventing its conventions all at once. Reyle's abstract sculptures and paintings are made with fluorescent colours, found objects, and shiny common materials including foil, glitter, and mirrors. Inspired by early abstract painter Otto Freundlich and using techniques innovated by Jackson Pollock and Barnett Newman, Reyle self-consciously revives aspects such as Hard-Edged stripes and the gestural brushstrokes of Abstract Expressionism. In 2011, Reyle made his affinity for popular culture explicit, designing accessories for fashion house Dior. Anselm Reyle has exhibited widely with works in many international collections.



Signed and dated on the reverse Acrylic, foil on canvas in artist's acrylic glass case . $143 \times 122 \times 17$ cm $\times 156.3 \times 48 \times 6.7$ in

Provenance
Galerie Giti Nourbakhsch, Berlin
Phillips, London, 16 October 2014, lot 191
Private collection



Jeff Koons 제프 쿤스 (b.1955)

미국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태어난 Jeff Koons는 현대 미 술계에서 가장 성공한 미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손을 거친 친숙하면서도 세속적인 물건들(플라스틱 인형, 진공청소기, 싸구려 도자기 장신구와 기타 여러 가지 일상 용품)은 원래 용도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 대중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상 징물이 되었다. Jeff Koons는 Andy Warhol과 같은 초기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되짚어보는 1980년대 네오-팝(Neo Pop)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진정한 팝 아트의 계보에서, 그 의 작품은 저속한(kitsch) 물건을 무언가 독보적이면서 값비 싼 것으로 탈바꿈 시킨다. 이러한 장난스러운 역설은 Koons 의 성공에 발판이 되었다. 실제로 Koons는 독창적인 마케팅 전력을 통해, 경험이 많은 미술품 소장가들을 심기를 건드리 기 보다는 이들의 미적 기대치를 바꾸겠다는 도전의 길을 선 택했다. 또한 '오해 받는 선지자'같은 미술가들이 갖고 있는 모더니스트적인 생각과 거리를 두고 있는 Jeff Koons는 자신 은 관객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작품을 열심히 홍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 반에 시작한 시리즈인 Jeff Koons의 'Balloon Dog'은 그 중 에서도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특수하게 성형되어 아주 반짝이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투명하게 코 팅 처리된 이 작품을 어른들이 보면 잊혀진 어린 시절의 추억 들이 언제라도 되살아난다. 이러한 스타일과 철학으로 전세 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Jeff Koons는 2010년 프랑스에 서 개최된 24 Hours of Le Mans 대회에 출전한 17th BMW Art Car를 디자인했다. 2013년에는 Lady Gaga의 ARTPOP 앨범 커버를 디자인했고, Dom Pérignon의 한정판 샴페인을 위해 Dom Pérignon Balloon Venus라는 맞춤형 조각 작품 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Louis Vuitton과 함께 거장들의 상징적 작품들을 뒤섞어 새롭게 해석한 디자이너 핸드백 Masters를 만들었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뉴욕 Rockefeller Centre 광장에 Jeff Koons의 기념비적인 조각 작품 Seated Ballerina가 설치되기도 했다.

Born 1955 in York, Pennsylvania, USA, Jeff Koons is one the most established and prominent artists 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In his hands, familiar and mundane items (inflatable plastic toys, vacuum cleaners, porcelain trinkets and other various everyday items) transcend their core functionality to become icons manifesting the essence of American popular culture. Jeff Koons embodies Neo Pop, a 1980s movement that looked up at earlier pop artists, Andy Warhol mainly, for inspiration. In the true Pop Art tradition, his work celebrates a kitsch mass produced aesthetic, transforming it into something exclusive and of great value. This tongue-incheek paradox has formed the basis of Koons' success. Indeed, through an ingenious marketing strategy. rather than risking offence to the seasoned art collector circuit, the artist chose to challenge them to revise their aesthetics expectations. Also distancing himself from the modernist ideal of the 'misunderstood visionary' artist. Jeff Koons is a self-proclaimed crowd-pleaser. and avid promoter of his own work. Jeff Koons' Balloon Dog sculptures, a series he began in the mid-1990s, are arguably amongst his best-known artworks. Made from precision-engineered mirror-polished stainless steel and finished with a transparent coating, they transpose a transient childhood memory into a permanent form weighted with adult nostalgia. An artist whose style and philosophy made him a favourite among commercial brands around the world. Jeff Koons created the 17th BMW Art Car that raced at the 24 Hours of Le Mans, France in 2010. In 2013, he designed Lady Gaga's ARTPOP album cover; and created the Dom Pérignon Balloon Venus custom-made sculpture for Dom Pérignon's limited edition champagne. And in 2017, with Louis Vuitton, he created Masters, a designer handbag collaboration remixing the iconic artworks of the old masters and presenting them in a way that encourages new interpretation. From May to July 2017, the Rockefeller Centre in New York, USA, had installed Jeff Koons' monumental Seated Ballerina sculpture on its main esplanade.

Balloon Rabbit (Red), 2017

Signed and numbered

Porcelain, edition of 999 . $29 \times 21 \times 14 \text{ cm} \mid 11.5 \times 8.3 \times 5.5 \text{ in}$

Provenance

Manufacture Bernardaud, Limoges, France

Editions published by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Signed and numbered

Porcelain, edition of 999 . 25 x 21 x 39.2 cm | 9.8 x 8.2 x 15.4 in

Provenance

Manufacture Bernardaud, Limoges, France

Editions published by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Balloon Swan (Yellow), 2017

Signed and numbered

Porcelain, edition of 999 . 24 x 21 x 16.5 cm | 9.5 x 8.3 x 6.5 in

Provenance

Manufacture Bernardaud, Limoges, France

Editions published by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Tracey Emin 트레이시 에민 (b.1963)

Tracey Emin은 1963년에 태어난 영국 미술가이다. 그 녀는 현재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 은 그림, 데생, 비디오, 설치에서부터 사진, 자수 및 조 각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Emin 은 있는 그대로, 때로는 비극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역 작을 통해 자신의 희망, 굴욕, 실패와 성공을 드러낸다. Emin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페미니스트의 담론을 확실 하게 담아 절박함과 때로는 도발적인 태도가 남아 있다. 기본적인 표현에 필요한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여성 고 유의 솜씨)를 재해석하는 Emin의 작품은 '정치적이면서 도 개인적인'페미니스트 사상이 울림을 준다. 에르바르 트 뭉크(Edvard Munch)와 에곤 실레(Egon Schiele)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Emin의 그림, 모노프린트와 데생을 보면 표현주의 스타일과 주제를 통해 복잡한 심리 상태 와 자기 표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Tracey Emin은 네덜란드, 독일, 일본, 호주 및 미국에서 진행된 단독 및 그룹 전시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2007년, Emin은 제52회 베니스 베엔날레에 역대 두 번째로 영국 대표로 참석했다. 같은 해, Emin은 왕립미 술원 회원이 되었고, 왕립예술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 를, University of Kent에서는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그리고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에는 왕립미술원의 데생 담 당 교수로 부임했고, 2012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시각 미술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대영 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전세계 주요 공공/민간 컬렉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racey Emin is a British artist born in 1963. She is currently based in London, England. Her art is one of disclosure, using her life events as inspiration for works ranging from painting, drawing, video and installation, to photography, needlework and sculpture. Emin reveals her hopes, humiliations, failures and successes in candid and, at times, excoriating work that is frequently both tragic and humorous. Emin's work has an immediacy and often sexually provocative attitude that firmly locates her oeuvre within the tradition of feminist discourse. By re-appropriating conventional handicraft techniques – or 'women's work' – for radical intentions, Emin's work resonates with the feminist tenets of the 'personal as political'. Her interest in the work of Edvard Munch and Egon Schiele particularly inform Emin's paintings, monoprints and drawings, which explore complex personal states and ideas of self-representation through manifestly expressionist styles and themes. Tracey Emin has exhibited extensive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Holland, Germany, Japan, Australia and America. In 2007 Emin represented Britain at the 52nd Venice Biennale, becoming the second female artist to ever do so. That same year, Emin was made a Royal Academician and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a Doctor of Letters from the University of Kent and a Doctor of Philosophy from th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In 2011 she became the Royal Academy's Professor of Drawing and in 2012, Queen Elizabeth II appointed her Command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for her contributions to the visual arts. Her work can be found in numerous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around the world.

What Colour is a Kiss. 2015

Neon (warm white and coral pink), edition of 3 + 2 AP . 116 x 130 cm | 47.7 x 51.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_{59}$

Paik Nam June 백남준 (1932-2006)

백남준은 1932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다. 백남준은 한국전쟁(1950년~1953 년) 때 고향을 떠난 후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University of Tokyo, the University of Munich,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음악과 음성 합성을 공부하면서 전문 분야를 넓혀나갔다.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독일의 Karlheinz Stockhausen과 John Cage과 쌓은 친분 관계는 아티스트로서의 백남준의 인 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Cage는 백남준에게 프랑스의 화 가이자 다다이즘의 중심 인물인 Marcel Duchamp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백남준은 전후 예술가들이 펼친 Fluxus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초기 다 다이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때, 백남준은 오디오 테이프와 피아노 간주곡, 클래식 음악, 비명, 음향 효과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악기와 작곡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했다. 디지털 매체가 급속도로 발 전하는 시기에, 백남준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면서 창 의적인 방식으로 기술적 역량을 접목시켰다. 그는 TV를 이용 하여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을 과감하게 선보이기 시작했다. TV는 공연과 설치에 사용되었다. 또한 매우 화려 하면서도 고속으로 재생되는 비디오 클립을 여러 대의 TV에 프로그램 된 몽타주로 강렬하게 표현했다. 백남준은 자신이 제작한 비디오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또는 편집하 여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복잡한 매트릭스를 구현했다. 백 남준의 작품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채택했 다. 1974년, 백남준은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엄청나게 많아 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 초고속도로'라는 용 어를 만들었다. 그가 희망한 것은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지금의 시각으로 그의 말과 작 품을 보더라도, 백남준이야말로 시대를 앞서 작품 활동을 하 면서 자신의 예지력을 보여준 천재라 부를만하다.

Paik Nam June was born in 1932 in Korea. He is widely recognised as the 'Father of Video Art'. Paik started to travel and work internationally after fleeing his home during the Korean War (1950-53). Paik developed a specialism in music and sound composition following his early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e University of Munich, and the Conservatory of Music in Freiburg, Germany. His friendship with the two revolutionary composers of the period, Karlheinz Stockhausen and John Cage in Germany was a vital connection in the foundation of Paik's life as an artist. Cage introduced him to the art of Marcel Duchamp, who was a significant influence. This new way of seeing brought him closer to the Fluxus movement, an international post-war group of artist, who were inspired by early Dada. In his early works Paik created artworks utilising the use of audiotape and performance connected together with interludes of piano, classical music, screaming and sound effects, in an attempt to question and dismantle traditional and established musical instrumentation and compositional practices. In the quickly developing world of digital media the artist successfully adapted his skills, incorporating technological progression in his creative methods. He revolutionised the use of television sets, to create his most well known art works. The television was used in performances and placed into installations. Paik also made chairs from piles of televisions and many versions of television robots. He combined fast-paced video clips often dramatically colourised, in high-energy montages programmed over several television monitors. Paik was a pioneer, combining straight and manipulated segments of broadcast programmes along with artistproduced videos, organised by a complex visual and aural matrix. Paik's oeuvre consistently and constantly challenged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In 1974 Paik created the term 'electronic superhighway' to describe the exponential growth of new forms of communication, which he hoped would help to tear down the boundaries between people. Looking at his words and his works through a contemporary lens, we can appreciate him as a prophetical, visionary genius working ahead of his time.

Easy Rider, 1993

Video installation (4 televisions, found metal, plastic, rubber and acrylic objects, oil and acrylic paint, electronic components, wooden plinth, laser disc)
91.4 cm x 69.9 cm x 149.9 cm | 36 x 27.5 x 59 in

Provenance

Phillips, New York, 14 November 2008, lot 358 Sotheby's New York, 11 May 2011, lot 506 Private collection



Antonio Seguí 안토니오세귀 (b.1934)

1934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태어난 Antonio Segui는 화가이자 삽화가이자 판화가이다. 스페인 마 드리드의 San Fernando Academy에서 공부했다. 1963년 파리로 건너간 Antonio Seguí는 지금도 파 리에서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오래 동안 중남미,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여행했다. 이러한 여 행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Seguí 는 항상 현대 도시생활에 대한 환상을 키웠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풍자하고 유머 러스하게 비판했다. 도시의 화가라 할 수 있는 Segui에 게는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 초현실주의자라는 별 명이 붙었다. 그의 작품은 도시의 낯선 가게에서 놀고 있는 괴기한 인물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작품 속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화려하면서도 그래픽 분위 기를 보여주는 그림은 역동적인 도시생활의 활력과 분 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그의 그림을 멀리서 보면, 오 밀조밀하게 모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아무런 개성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등장하여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 고, 주위에는 비슷한 건물과 나무들이 가득하다. Seguí 는 그림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프랑스에 발표된 Jorge Luis Borges, Apollinaire, Carlos Semprun 등 유 명 작가의 책에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 70여 공공 컬렉션에 전시되어 있다.

Antonio Seguí was born in Córdoba, Argentina in 1934. He's a painter, illustrator, and printmaker. He studied at the San Fernando Academy in Madrid, Spain. In 1963, he moved to Paris, where he lives and works today. Seguí spent many years traveling through Central and South America, Europe and Africa. These journeys exposed him to new ideas and encouraged his culturally diverse approach to art. Throughout Segui's career, he developed a fascination with contemporary urban life, and his paintings serve as satire or humorous critiques of society and human nature. A painter of cities, Seguí has been labeled both an informalist and Surrealist. His works are filled with grotesque characters playing out strange stories in an urban setting. Multiple stories unfold within work, the colourful and graphic painting vibrating with the pulse and atmosphere of urban excitement. When seen from a distance, Seguí's densely packed figures morph into repetitive, depersonalised patterns, wandering immutable routes leading nowhere and engulfed by a labyrinth of near-identical buildings and trees. In addition to his paintings, Seguí has illustrated many books published in Belgium and France, including texts by Jorge Luis Borges, Apollinaire, and Carlos Semprun. His work is included in more than 70 public collections worldwide.



Provenance Artist's studio



Turi Simeti 투리시메티 (b.1929)

Turi Simeti는 1929년 이태리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화가이다. 현재는 이태리 밀란에서 생활하면서 작품 활 동을 하고 있다. Simeti의 작품은 공간주의 및 독일의 ZERO 그룹과 연관성이 많고, 빛과 색깔과 기하학의 엔 지니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미니멀리스트, 단색의 캔 버스 등으로 잘 알려진 Simeti는 Yves Klein과 Piero Manzoni와 같은 아방가르드 화가들과 함께 작업했다. 그의 작품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을 단색으로 표현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포착하려는 화가의 세대의 열망이 담겨 있다. 지난 50년 동안, Simeti는 여러 방 식으로 자신의 작품에 각기 다른 형태의 긴장감을 표현 했다. 주로 타원형 또는 장방형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캔버스의 표면을 색다르게 활용하면서 불규칙적인 언어 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색깔과 형태의 인위 적인 조합은 화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그림 자 체로서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조해야 한다는 Simeti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빛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촉감이 느껴지는 단색의 표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한 미적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성을 포착하는 색 깔과 형태와 그림자가 활발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의 작품은 뉴욕의 Solomon R. Guggenheim Museum, 베니스의 Peggy Guggenheim Collectio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Turi Simeti is an Italian painter born in Sicily in 1929.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Milan, Italy. Simeti's artwork is affiliated with the Spatialism and ZERO group and often described as an engineer of light, colour and geometry. Known for his Minimalist, monochrome canvases, Simeti worked alongside other members of the avant-garde such as Yves Klein and Piero Manzoni. Simeti's work embodies the desire of the artists of his generation to capture a peaceful quality through monochromatic abstraction during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For the last 50 years, Simeti has created in his works different forms of tension using several formats. Usually employing the motif of the oval or oblong ellipses, he has attempted to develop an irregular language that liberates the surface of the canvas from older principles of materiality. This focused combination of colour and shape speaks of Simeti's concern with emphasising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artwork itself,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the artist's voice. Simeti's work explores the play of light on form, creating monochromatic and tactile surfaces. His works exist not as single entities but as an active experience of colour, shape and shadow that captures the dynamism that exists between these aesthetic elements. His work has been exhibited worldwide including notable exhibitions at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and the Peggy Guggenheim Collection in Venice.

Un ovale bianco, 2015

Acrylic on shaped canvas \cdot 30 x 30 cm \cdot 1 11.8 x 11.8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Certificate

The Archivio Turi Simeti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no. 2015 -130302)



Pino Manos 피노마노스 (b.1930)

Pino Manos는 1930년에 이태리 '사사리'에서 태어 났다. 1951년에 밀란으로 건너가 Enrico Castellani, Vincenzo Agnetti와 함께 Accademia di Belle Arti di Brera에 입학했다. 같은 시기에 그는 Politecnico di Milano에서는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956년, 로마에서 잠깐 지내는 동안 미술/문화 유산의 영향을 많 이 받았고, 이후 플로렌스로 거처를 옮겨 건축 공부를 마쳤다. 1962년 이후, Manos는 유럽, 인도,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이란, 페루, 멕시코, 미국 및 중동을 여 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Pino Manos는 Roberto Crippa, Gianni Dova, Marino Marini, Augustino Bonalumi, 특히 Lucio Fontana와 친하게 지냈으며, 공간주의(Spatialism)에 집착했다. 1968년, Manos 는 밀란으로 영구 귀국했다. 1980년에는 밀란에 'The Creative'라는 미술 치료 협회를 설립하여 숨어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고 소통과 표현을 활성화에 필요한 창 의력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치료 방식을 약물 중 독자와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 다. Manos는 미술과 치료라는 주제를 걸고 이태리 전 역에서 세미나와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Manos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 품들은 민간 및 공공 컬렉션 포함되어 있고, 미국 뉴욕 의 Nelson Rockefeller Collection에는 세 개의 작품 이 소장되어 있다.

Pino Manos was born in Sassari, Italy, in 1930. He moved to Milan in 1951 to attend the Accademia di Belle Arti di Brera, along with Enrico Castellani and Vincenzo Agnetti. At the same time he began studies in architecture at the Politecnico di Milano. In 1956 he spend a short time in Rome, inspired by the artistic and cultural heritage and shortly after he moved to Florence, to finish his studies in architecture. Since 1962, Manos has travelled and worked in Europe, India, Egypt, Israel, Turkey, Iran, Peru, Mexico, USA and the Middle East. He was a close friend with Roberto Crippa, Gianni Dova, Marino Marini, Augustino Bonalumi and especially of Lucio Fontana, and he adhered to the Spatialism movement. Manos moved permanently to Milan in 1968 where he still resides. In 1980 he founded The Creative in Milan, an association pioneering art therapy, to inspire the use of creativity to liberate untapped potential and improve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The methodology was applied with positive results in cases of drug addiction and disability. Manos continues to organise and coordinate seminars and conferences all over Italy, on topics related to art and therapeutic practice. Manos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worldwide. His works are in numerous private and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three works in the Nelson Rockefeller Collection in New York, USA

Sincronico nero cyan quadrato, 2014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Mixed media on canvas . 90 x 90 cm | 35.4 x 35.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Alessandro Algardi 알렉산드로 알가르디 (b.1945)

Alessandro Algardi는 1945년 이태리 '밀란'에서 태 어났고, 지금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Algardi의 그림 은 시각적으로 시적(詩的)으로 실험적인 영역을 오르내 린다. 흑백 캔버스와 종이에 작업을 하는 Algardi는 작 품 표면에 몇 가지 성구(聖句)를 새겨 넣는다. 이렇게 압착된 문구는 알아보기 어렵게 변하고, 결국에는 그 의 미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의 그림들은 현실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전세계 100여곳에 달하는 갤러리에서 Alessandro Algardi 의 전시회가 열렸고, 여기에는 런던의 Art Gallery, 베니스의 International Arts, 뉴욕의 Museum of Modern Art 등이 포함된다. Alessandro Algardi의 미술 작품들은 미국 아이오와주의 Dubugue Museum of Art, 미국 조지아주의 Savannah College of Art & Design, 이태리 '빈치니'의 Museo Giovanni, 이 태리 '로베레토'의 Mart Museum, 그리고 이태리 '밀 란'의 Museo del Novecento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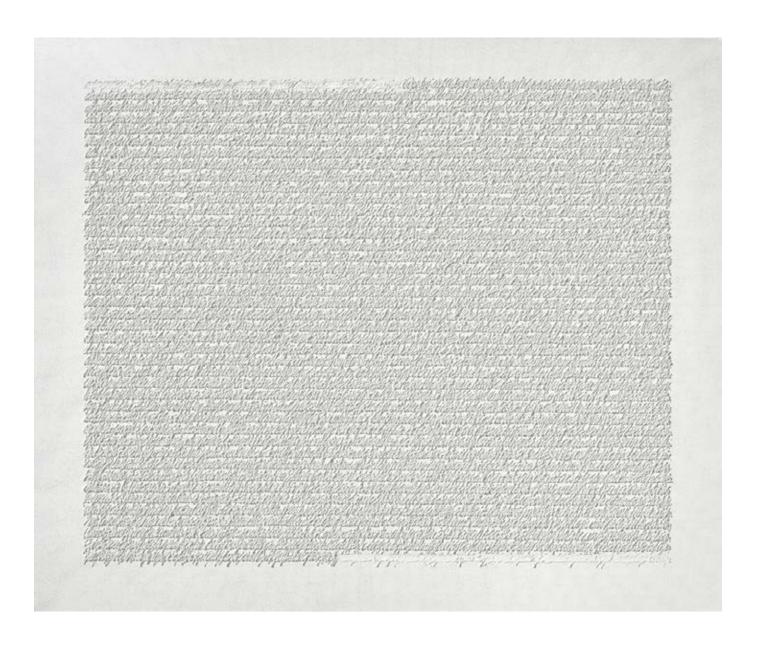
Alessandro Algardi is an Italian artist born in Milan in 1945 where he still resides. Algardi's paintings fluctuate within the experimental field of the visual and the poetic. Working on monochrome canvas and paper, Algardi carves several layers of scripture onto the surface of the work. The rendering of words then becomes incomprehensible and ultimately devoid of meaning. The paintings question the limitation of language to denote a complete representation of reality. Alessandro Algardi's exhibitions have been extensive with participation in over one hundred gallery exhibitions worldwide, including the Imago Art Gallery in London, the International Arts Center in Venice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Alessandro Algardi's artworks appear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Dubugue Museum of Art in Iowa, the Savannah College of Art & Design in Georgia, USA and the Museo Giovanni Verga in Vizzini, Italy, the Mart Museum in Rovereto and the Museo del Novecento in Milan, among others.

4.04.2008. 2008

Oil on canvas . 100 x 120 cm | 39.4 x 47.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_{69}$

Umberto Mariani 움베르토 마리아니 (b.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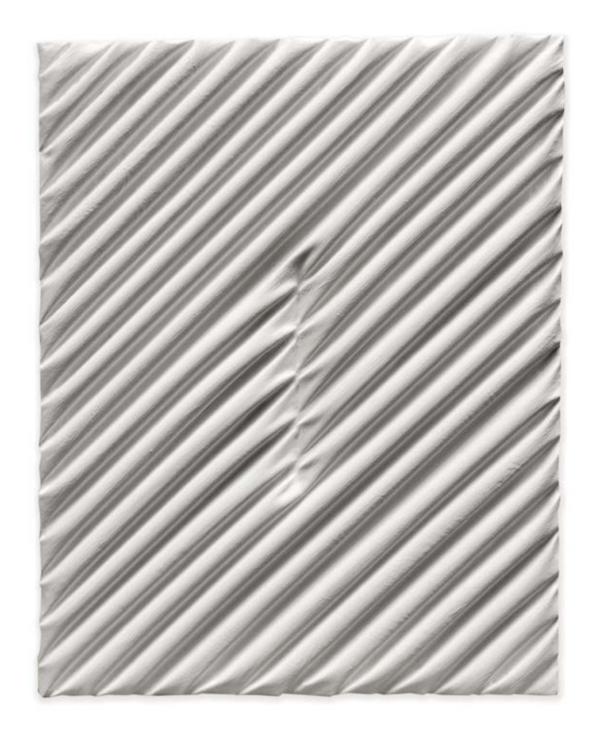
Umberto Mariani는 1936년에 이태리 밀란에서 태 어났고, 지금도 밀란에서 생활하고 있다. 1950년에 Accademia di Brera에 입학하여 Achille Funi의 지도 를 받았고,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낭만주의 시대의 거장 들에 대해 공부했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팝 아트와 초현 실주의라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스타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란 이태리 거리의 클래식 조각 작품들 이었다. 백색 대리석에 조각된 직물의 섬세한 구김 표현 에 매료된 Mariani는 이후 자신의 작품 재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게 되었다. 불규칙한 형태의 캔버스 위에 복잡 하게 얽혀 있는 주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작품 은 원단의 주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빛과 그림자를 묘사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다차원(多次元)의 작 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주(主) 원단 위에 복잡한 주름들 이 어우러져 있다. 원단은 밑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기 본 요소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암 시하기도 한다. Mariani의 작품은 이태리 아방가르드의 3차원적 공간주의를 연상시킨다. 그의 첫 번째 기념비 적 작품은 바티칸의 St. Peter's Basilica를 위해 1960 년대에 그린 작품과 로마의 St. Antony Sanctuary를 위해 그린 작품이다. 1970년대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Palais des Beaux-Arts, 프랑스 파리의 Musée d'Art Moderne 등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갤러리와 미술관 전시회는 물론 전세계 민 간 및 공공 컬렉션에 그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Umberto Mariani was born in Milan, Italy in 1936 where he still resides. In 1950 he enrolled in the Accademia di Brera, studying under Achille Funi, where he graduated with honours. Although he studied the masters of the Romantic period he was surrounded by the emerging movements of Pop Art and Surrealism. However, the most profound influence upon his developing style were the classical statues that he grew up observing on the streets of Italy. Mariani's fascination with the delicate folds of fabric carved out of the hard white marble would later develop into a desire to manipulate material. Best known for his complex draperies on irregular-shaped canvases, his work explores illusions of light and shadow created within the folds of fabric. New multi-dimensional works combine intricate drapery over elusive lead sheets. The fabric serves the purpose of concealing the mysterious base element beneath, whilst also evoking its presence. Mariani's work is reminiscent of the three dimensional Spatialism of the Italian avant-garde. His first monumental work was for St. Peter's Basilica in the Vatican, which he made in the 1960s, as well as the St. Antony Sanctuary in Rome, and in the 1970s he exhibited widely in prominent institutions in Europe such as the Palais des Beaux-Arts in Brussels, Belgium, and the Musée d'Art Moderne in Paris, France. He has been included in numerous gallery and museum exhibitions with works in private and public collections worldwide.

Senza titolo, 2016

Vinyl and sand on lead sheet \cdot 43 x 33.5 cm \cdot 1 16.9 x 13.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Marcello Lo Giudice 마르셀로로기우디체 (b.1957)

Marcello Lo Giudice는 1957년 시칠리아 '타오르미나' 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재 이태리 밀란에서 활동하고 있 다. 1988년 이태리 University of Bologna에서 지질학 학위를 받았다. 이후 베니스의 Academy of Fine Arts 에 입학하여 Emilio Vedova, Giuseppe Santomaso 및 Virgilio Guidi의 지도를 받았다. Lo Giudice는 제2 차 세계대전 소용돌이 속에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추상표 현주의 형태인 European Art Informel의 가장 혁신적 인 미술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다. Lo Giudice 는 색조가 풍부한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는 방식으로 표 면의 질감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그의 작품들은 입체감이 살아 있는 지형(地形)처럼 빛이 충만 하고 신비한 에너지가 발산된다. 2009년과 2011년에 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태리를 대표하여 참가했고, 전 세계 여러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크로아티아의 Zagreb Museum of Contemporary Art, 이태리 로 마의 Museu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스위스의 John Elkann Collection, George Segal Collection, Phillip Morris Collection 등 세계 주요 공공 컬렉션 및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Marcello Lo Giudice was born in Taormina, Sicily, in 1957. He is currently based in Milan, Italy.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Bologna in Italy in 1988 with a degree in Geology. He then attended the Academy of Fine Arts in Venice, where he studied under Emilio Vedova, Giuseppe Santomaso and Virgilio Guidi. Lo Giudic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novative artists from the second wave of the European Art Informel, a form of Abstract Expressionism pioneered in France in the wake of the Second World War. Lo Giudice achieves his sumptuous surface textur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rich coloured pigment, applied in many layers. The resultant paintings are geological, tactile and imbued with saturated light and a mystical energy. Lo Giudice was selected to represent Italy at the Venice Biennale in 2009 and 2011, and has exhibited in numerous exhibitions throughout the world. His works can be found in major public collections and museums including the Zagreb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Croatia, the Museu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Rome in Italy, the John Elkann Collection, the George Segal Collection and the Phillip Morris Collection in Switzerland. In 2016, his work was exhibited in the Ludwig Museum in the Russian Museum in St. Petersburg, Russia.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Pigment and oil on canvas . $100 \times 100 \text{ cm}$ I $39.4 \times 39.4 \text{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Fabrizio Plessi 파브리치오 플레시 (b.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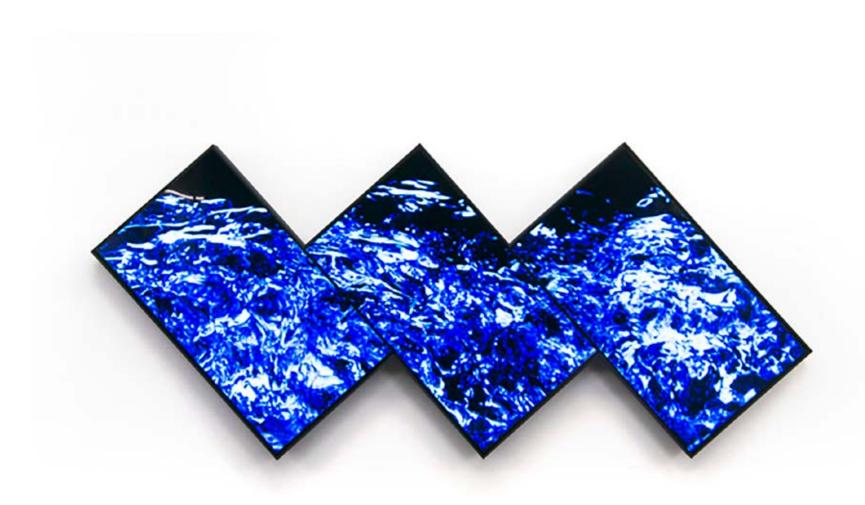
Fabrizio Plessi는 1940년 이태리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베니스의 Accademia di Belle Arti에서 공부했고, 나중에는 이 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중 한 사람인 Fabrizio Plessi는 영화, 공연, 조각 및 설치 예술 분야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비디오 아트의 초기 선구자라고 할만한 Plessi는 매체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이태리 최초의 아티 스트 중 한 사람이다. 화가 교육을 받았지만, 1960년대부 터 자신의 작품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68년 무렵부터, 여러 분야에 대해 물을 이용하여 실험 하는 것이 그의 작품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Plessi는 원 시적이고 신비한 연상(聯想)에 매료되었다. 1980년대 이 후, Plessi는 예술과 미술의 관계,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 성된 환경과 자연 환경 속에서의 우리들의 관계를 조절하 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물, 불, 용암과 같은 자연의 힘 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돌과 나무로 만든 거대한 '육상(陸 上)' 구조물에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자연의 힘을 포착하 여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그대로 재연함으로 써, 그는 역사와 기억과 경치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물음 을 던진다. 1987년, Plessi는 독일 '카셀'의 Documenta 8에서 그의 대표작 "Roma'를 전시하면서 세계적으로 인 정을 받았다. 고대 로마의 유적을 표현한 "Roma"는 돌의 잔해와 컨베이어 벨트에 내장된 36개의 비디오 화면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었다. 이후 Plessi는 현장 중심으로 바 로크 스타일의 대형 설치 작품을 제작하여 해외 주요 갤 러리와 미술관에 전시했고,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참석했 다. 2013년 11월, 이태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세관 부지였던 'Brenner Pass'에 그의 작품만 전시하는 Plessi Museum이 문을 열었다.

Fabrizio Plessi is an Italian artist born in 1940 in Reggio Emilia, Italy. He studied at the Accademia di Belle Arti in Venice, where he subsequently held a professorship in painting. One of Europe's most influential video artists, he also works in film, performances, sculpture and installations. An early pioneer of video art, Plessi is one of the first artists to experiment with the medium in Italy. Trained as a painter, he began adding moving images to his work in the 1960s. As early as 1968, his multidisciplinary practice concentrated on the natural elements with water becoming the central theme of his works. Plessi was drawn to the element for its primordial and mystical associations. Since the 1980s, Plessi began to medit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technology and ou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both built and natural. He began integrating his images of elemental forces like water, fire, and lava in large-scale terrestrial constructions of stone and wood. By capturing the elements and juxtaposing them with the built environment, he questions our ideas about history, memory and landscapes. In 1987, Plessi achieved worldwide recognition when his iconic work Roma was exhibited at Documenta 8 in Kassel, Germany. Staged as a monument of ancient Rome, Roma was an installation combining stone ruins and 36 embedded video screens on a conveyer belt. He has since created numerous site-specific installations, often tending towards the large-scale and Baroque, and has exhibited in major gallerie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ly, including multiple participations in the Venice Biennale. In November 2013, the Plessi Museum, dedicated exclusively to his work, opened at the Brenner Pass, the former customs area between Italy and Austria. In 2014, Plessi was the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Premio Pascali award.



Mixed media . 122 x 272 x 6 cm | 48 x 107.1 x 2.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ascal Haudressy 파스칼 오드레시 (b.1968)

타타르족 출신인 프랑스 미술가 Pascal Haudressy는 자신의 미적 접근 방식을 통해 내용과 형식 사이의 밀 접한 관계를 보여주려고 한다. UNESCO의 문화 프로 젝트 책임자였던 Haudressy는 미술, 건축, 사회학, 철 학, 문학 및 과학 분야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했다. 그는 Rauschenberg, Matta, Hunderstwasser 등과 함께 ' 관용의 깃발(Flags of Tolerance)'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Haudressy의 작품은 회화, 조각 및 비디오 사이에 남아 있는 여백의 공간을 탐구한다. 그는 움직 임, 구체성(具體性), 비(非)구체성의 본질에 대해 법의학 적으로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미지 형식을 처음으로 도 입하면서 생물학적 삶의 형태와 가상의 삶의 형태가 공 존하는 우리 세상의 변질된 모습을 탐구한다. 스크린은 그 표면에 이미지가 스스로 드러나는 하나의 베일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경험'을 통해, 이미지와 그림자와 빛과 표면의 물질과 움직임은 하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여 기에서 가상의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 면서 하나가 된다. Haudressy는 자신의 뿌리가 있는 우 즈베기스탄, 특히 '사마르칸트'의 전통적인 장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움직이는 모티프의 반전(反轉)은 그 의 작품에서 항상 나타나는 특징들을 끊임없이 재구성 하는 이미지들이 흘러나온다. Haudressy는 사전에 계 산된 과학적 요소와 동서양의 신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벨 기에 브뤼셀의 Boghossian Foundation과 프랑스 파 리의 Espace Vuitton에 많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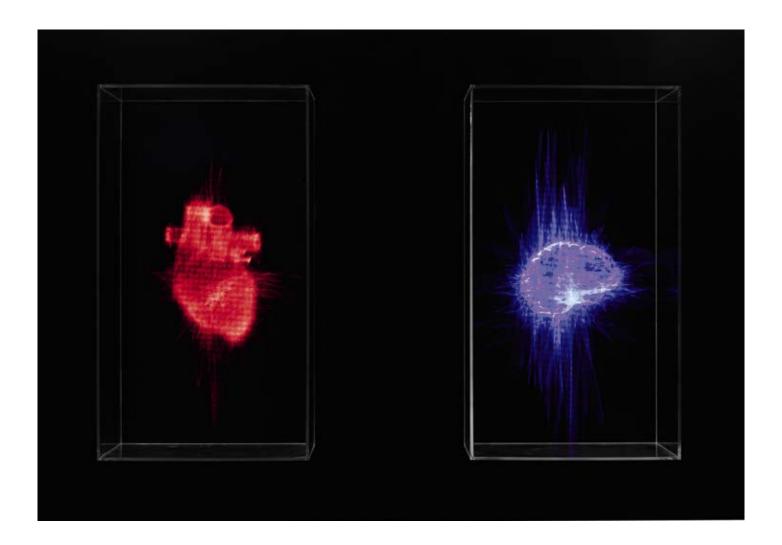
Pascal Haudressy, a French artist of Tatar origin, aims for an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 and form through his artistic approach. As a former cultural project manager for UNESCO, Haudressy has met major figures in art, architecture, sociology, philosophy, literature and science. He launched the 'Flags of Tolerance'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Rauschenberg, Matta and Hunderstwasser. Haudressy's work explores the blank space between painting, sculpture and video. The artist has pioneered a new image format that forensically focuses on the nature of movement, materiality and immateriality, exploring mutations of our world, in which biological and virtual life forms coexist. The screen is as much a veil as a surface where images reveal themselves. In this 'idea-experience', images, shadows, light, surface materials and movement form a continuum where virtual and physical spaces interact and merge. Haudressy is inspired by his ancestral ties to Uzbekistan and notably by the ornamental traditions of Samarkand art. The twists of moving motifs give birth to a flux of images that endlessly reconfigure themselves in a constant characteristic of his own work. Haudressy visually draws in the calculated qualities of science and the alchemy of myth, from the Orient to the Occident. His work has notably featured in the Boghossian Foundation, Brussels, Belgium and in the Espace Vuitton, Paris, France.



LCD screens, Plexiglas and metal, in two parts . 100.5 x 169.5 x 50 cm | 39.6 x 66.7 x 19.7 in

Provenance

RPVH Dream Set, Paris



Katrin Fridriks 카트린 프리드릭스 (b.1974)

1974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태어난 Katrin Fridriks는 추상화가로, 현재는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고향 아이슬란드자연의 에너지와 일본 서예 요소를 폭발적이고 유기적인 추상 표현주의에 접목시켰다. 설치와 시각적 구성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도 건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Fridriks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의 존재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Fridriks의 작품은 그녀만의 혁신적인 추상의 형식을보여준다.

Born in 1974 in Reykjavik, Iceland, Katrin Fridriks is a conceptual abstract painter, living and working in Luxembourg. She fuses the natural energies of her native Iceland with an explosive, organic, abstract expressionism along with subtle Japanese calligraphic elements. Often presented through installations and visual compositions, she has given an architectural dimension to her paintings. Through a wide range of works, Fridriks communicates her questioning of the world, human existence and potential futures. An endless development of material and technique sees many of her pieces constantly reworked and evolved. Through creating new perspectives, Fridriks' work brings an innovative dimension to her form of abst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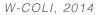
Icelandic Syndrome - Dreamliner, 2015 Acrylic on canvas . 100 x 200 x 5 cm I $39.4 \times 78.7 \times 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Alfred Haberpointner 알프레드 하버포인터 (b.1966)

오스트리아 '이베노'에서 태어난 Alfred Haberpointner 는 '할라인'의 School of Sculpture, 그리고 '린초'의 University of Design에서 Erwin Reiter 교수와 함께 공부했다. 그는 현재 오스트리아 '레온딩'에서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나무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나무의 미묘한 분위기와 색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의 작품들은 구상적으로 뚜렷하여 이해하기 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나무로 만든 사람의 머리를 납으로 씌우거나 핀으로 구멍을 뚫어 놓아도, 기본적인 나무 형태는 그대로 보인다. 1990년, Haberpointner는 오스트리아 린초에서 미술산업 디자인 부문 Award of the Academy를 수상했고, 1997년에는 과학미술 발전의 공로로 Theodor Körner Prize를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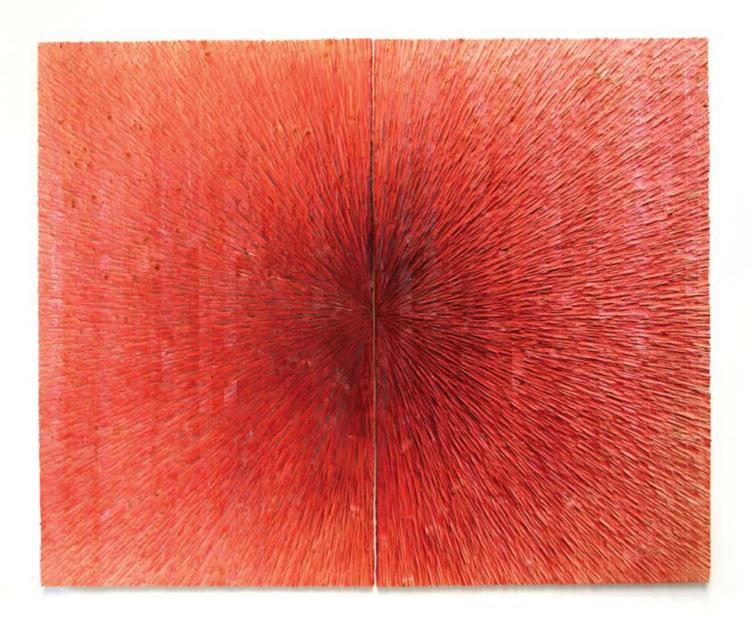
Born in 1966 in Ebenau, Austria, Alfred Haberpointner studied at the School of Sculpture in Hallein and at the University of Design in Linz with professor Erwin Reiter. He now lives and works in Leonding, Austria. He works using wood as his primary medium harnessing all its nuances and shades. His works are, on the one hand figuratively recognisable and comprehensible, and on the other hand remain arrested in their abstract geometry. Whether he shrouds his wooden heads with lead or pierces them with pins, the underlying wood form always remains visible. In 1990, Haberpointner received the Award of the Academy of Art and Industrial Design in Linz, Austria and in 1997 he received the Theodor Körner Prize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Art.



Spruce wood stained . $200 \times 244 \text{ cm} + 78.7 \times 96.1 \text{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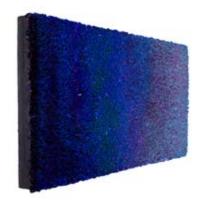
 \circ

Zhuang Hong Yi 주앙홍이 (b.1962)

Zhuang Hong Yi는 1962년에 중국 스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현재 Zhuang는 동서양을 자주 오가면서 네덜란드의 작업실과 베이징 작업실에서 번갈아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서구 미술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를 활용하는 동양의 기술이 접목된 인상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색깔이 변하는' 조각적 회화로 유명한 Zhuang Hong Yi는 3차원 기술에 정통하여 네덜란드의 광활한꽃받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색깔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Zhuang는 대담하면서도 기이한 그림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중국 베이징의 Found Museum, 네덜란드의 Groninger Museum 등 세계 유명 전시회에서, 그리고 2013년 제55회 Venice Biennale와함께 이태리 베니스에서 30차례 이상 개인전 및 그룹전을 열었다.

Zhuang Hong Yi was born and raised in Sichuan, China, in 1962. Zhuang now travels constantly between East and West, working alternately between his studio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and his Beijing studio, China. As such, his work references Western artistic movements, specifically Impressionism combined with Eastern inspired techniques incorporating the use of rice paper. Known for his 'colour-changing' sculptural paintings, Zhuang Hong Yi has mastered a three-dimensional technique, which draws inspiration from the life affirming, glory of nature, specifically the dynamic saturated colours reminiscent of the ubiquitous flower fields of Holland. Zhuang has achieved international acclaim for his bold idiosyncratic paintings which have featured in over 30 solo exhibitions and important group shows in major venues worldwide including the Found Museum in Beijing, China, the Groninger Museum, in The Netherlands and Venice in conjunction with the 55th Venice Biennal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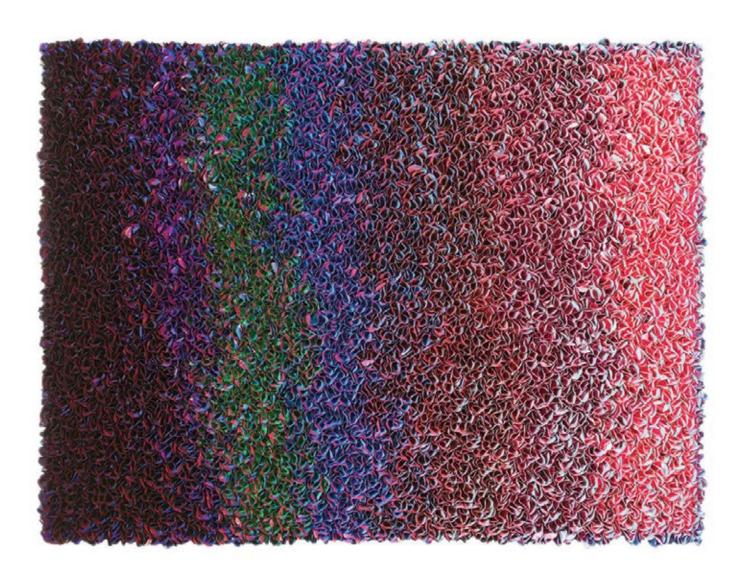
Left view detail





A2016-087, 2016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Collage of rice paper, acrylic, ink and varnish on canvas . $150 \times 200 \text{ cm } \text{ I} 59.1 \times 78.7 \text{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Joe Black 조블랙 (b.1973)

Joe Black은 수천 개의 작은 물건들을 이용하여 형상화한 대 중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에 기반하는 대형 작품으로 알 려진 영국 출신의 현대 미술가이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이 미지와 매체 사이의 아이러니한 관계를 탐구하여 복잡하면 서도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작품들이 수 개 월 동안 꼼꼼하게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Black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작은 복합 부 품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이미지 모두를 연출함으로써 자각 행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있다. 그는 웅장함과 복잡함을 관 람객이 동시에 경험해야 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 다. Black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 물을 바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Black은 대신 2진법적 형태의 실물동화(實物動畵)를 만듦으로써, 다시 말하면 순전히 사람 의 손으로만 조립하여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자각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렸다. 움직 이지 않는 무생물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피사체의 특징을 표 현하면서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Joe Black is a British contemporary artist known for his large-scale artworks based on popular or iconic imagery constructed from thousands of tiny commonplace objects. His oeuvre often explores the ironic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 and the chosen medium resulting in intricate and monumental works. Each piece is an undertaking requiring months of meticulous assembly. Through his endeavour, Black explores the act of perception by making images that are seen both as a whole and as a collection of small composite parts. He achieves his objective for the viewer to experience the grand and the intricate simultaneously. Through Black's interpretation, the subject of the work is given a totally new context. In the age of immediacy resultant through the increased use of digital media, Black has intentionally subverted our perceptions by creating an alternative, binary form of pixilation - one that takes considerable time to produce and conceive, assembled entirely by the human hand. Inanimate objects are skilfully used to give expression to the subject's personality, creating a metamorphosis of the ordinary into something extraord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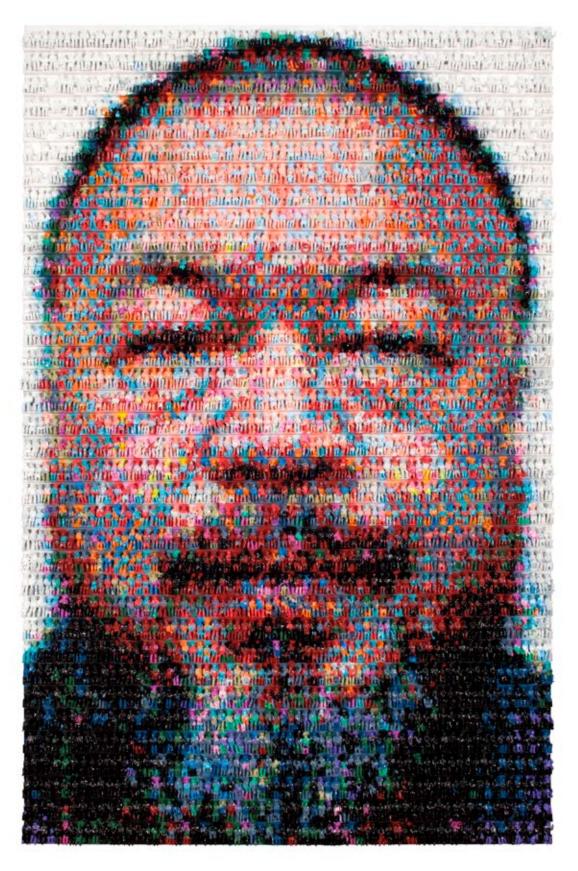
Close-up detail

Power to the People, 2016

2,500 hand-painted plastic figures on aluminium with clear lacquer coating $135.5 \times 91.5 \times 7 \times 153.3 \times 36 \times 2.8 \times 100$ in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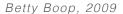
Artist's studio



Paul Alexis 폴 알렉시스 (b.1947)

Paul Alexis는 1947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Alexis는 풍부한 영감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평생 여러 곳을 다녔다. Alexis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더블 테이크(double take: 동일한 내용을 관람객을 위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의 형식을 보여주는 추상적 현실주의가 녹아 있다. 가까이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친숙한 이미지가 한 꺼풀 뒤에 숨어 있어 관람객이 한 걸음 물러서면 어둡게 채색한 부분에 얼굴의 형태나, 물건 또는 어떤 상징물이나타난다. 대형 화폭에 작업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Alexis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은 색깔의 순수함과 뚜렷하지 않는 형식에 빠져들면서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Paul Alexis was born in France in 1947. Alexis has spent the majority of his life travelling in search of spiritual harmony and creative development. Alexis' art is infused with an abstracted realism that forces the viewer into a double take. Lurking within the layers is a familiar image, often obscured up close, but as the viewer steps back a face, an object or an icon is revealed from the painterly shadows. Preferring to work in large formats, Alexis' works engulf the viewer in their purity of colour and ghostly forms, the joy of recognition becomes an integral part of the viewer's experience.



Oil on canvas . 120 x 120 cm | 47.2 x 47.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David Mach 데이비드 마크 (b.1956)

David Mach는 1956년에 태어난 영국의 미술가이다. Mach의 작품들은 다양한 방식과 소재를 활용하고 있 고, 복잡하면서도 초현실적인 유머를 보여준다. 그는 New English Sculpture 운동의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0년, Mach는 Royal Academy School의 조각 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David Mach는 1982년에 Lisson Gallery 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연 이후 이름이 많이 알려 졌다. 1988년에는 런던 Tate Gallery에서 Turner Prize 후보에 올랐고 1992년에는 '글래스고'에서 Lort Provost's Prize'를 수상했다. New English Sculpture 운동의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 는 David Mach는 런던의 Tate Britain, National Portait Gallery, 에든버러의 City Art Center,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등 세계 여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David Mach is a British artist born in 1956. Mach's artworks utilise an eclectic range of methods and materials. They are defined by an incredible intricacy and surreal humour. He is considered one of the leaders of New English Sculpture movement. Mach was appointed Professor of Sculpture at the Royal Academy Schools, London in 2000, Scottish sculptor David Mach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Lisson Gallery, London in 1982. He has continued to gain prominence since then. In 1988 the artist was nominated for the Turner Prize at the Tate Gallery in London, and in 1992 was the recipient of the Lord Provost's Prize in Glasgow. Considered one of the leaders of New English Sculpture movement. David Mach's exhibitions have been extensive including works held in several museums worldwide, including the Tate Britain,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City Art Centre of Edinburgh, and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an Diego, C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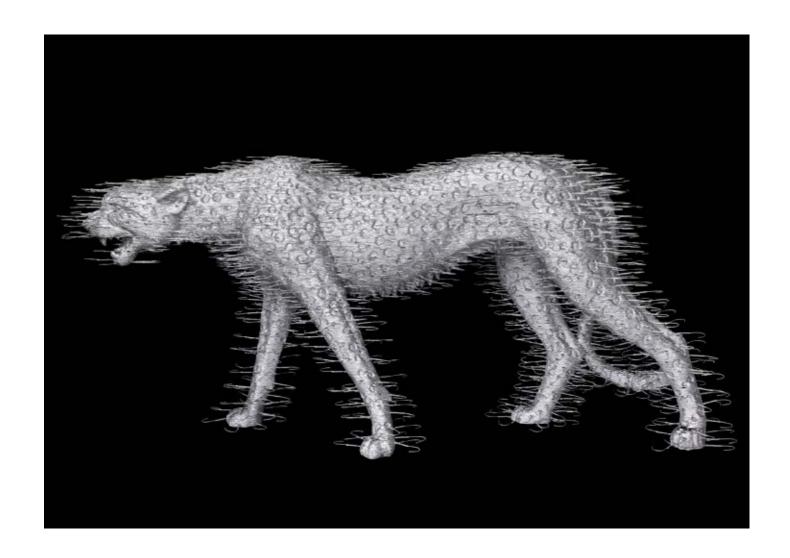


Mixed media postcards on wood . 100 x 100 cm | 39.4 x 39.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Cheetah, 2012

Coat hangers, edition of 4 . Length: 244 cm | 96.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Sea Whip, 2012 Pin heads on foam . $60 \times 34 \times 34$ cm | $23.6 \times 13.4 \times 13.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Mauro Corda 모로 코르다 (b.1960)

1960년에 프랑스 '루르드'에서 태어난 Mauro Corda 는 아주 어린 나이에 조각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15세 때에 École des Beaux-Arts of Reims에 입학했고, 이후 학업을 마치기 위해 파리로 갔다. 주로 인물을 조 각했던 Corda는 청동, 알루미늄, 철, 스테인레스, 연 마 강철 및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Corda 의 작품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Museo Eduardo Sívori, 쿠바의 Museo Victor Hugo 및 스 페인 바르셀로나의 Museo Frederic Marès 등 해 외 여러 미술관에 전시되었다. 그의 작품은 해외 갤러 리에도 많이 전시되었다. Corda는 Paul Belmondo Award, French Order of Arts and Letters 등 많 은 상을 수상했다.

Born in 1960 in Lourdes, France, Mauro Corda displayed a talent for sculpting at a very early age. At 15, he was admitted to the École des Beaux-Arts of Reims and later went on to finish his studies in Paris. Predominantly a sculptor of the figure, Corda uses a rich variety of material such as bronze, aluminium, iron, stainless and polished steel as well as glass for his forms. Corda's work has been exhibit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museums including the Museo Eduardo Sívori in Buenos Aires, Argentina, the Museo Victor Hugo in Cuba and the Museo Frederic Marès of Barcelona, Spain. He has been exhibited extensively in art galleries internationally. Corda has been the recipient of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Paul Belmondo Award and the French Order of Arts and Letters.



White bronze, edition of 8 . $28 \times 75 \times 24$ cm | $11 \times 29.5 \times 9.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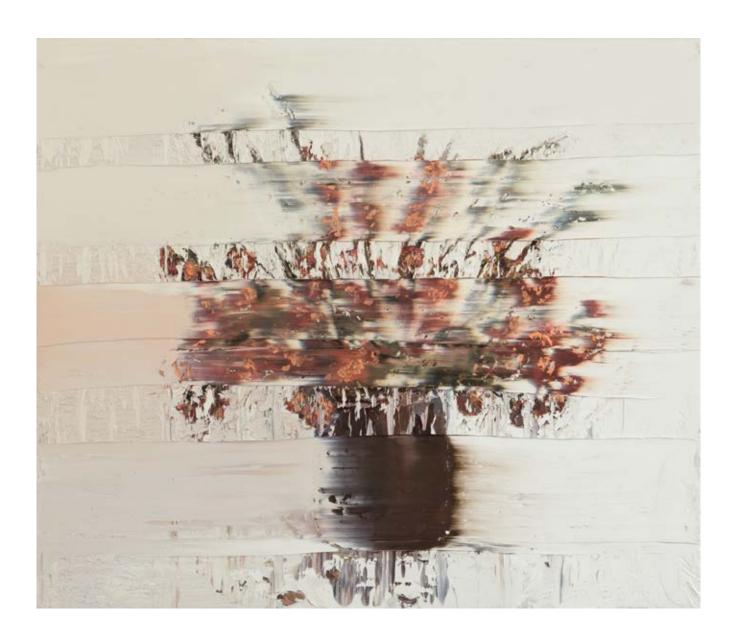
Andy Denzler 앤디댄즐러 (b.1965)

Andy Denzler는 196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지금도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다. Denzler는 2006년 런던의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순 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그림은 자신이 바라 보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흐릿하게 동작이 왜곡된 정지 화면을 찍은 스냅샷으로 구현되는 그의 작 품은 추상적 표현주의와 사진에 의한 사실주의가 세련 되게 결합되어 있다. 화면은 정지되어 있고 추상적 이 미지가 전체 분위기를 압도한다. 정지된 화면과 결과 물을 보면 특정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한 액션 장면처 럼 보인다. Denzler는 두꺼운 임파스토(impasto) 위 에 수평으로 붓질을 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미학을 구 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Denzler는 종종 영화를 인용하면서 제목과 주제를 통해 다른 매체도 자주 보 여준다. 그의 '모션 페인팅'은 '초상화', '역사', '인물과 풍경', 그리고 '도시 인물' 등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 어 그림으로, 데생으로, 어떤 경우에는 조각으로 해석 하고 있다. Denzler의 작품은 유럽과 미국에서 다수 의 단독 및 그룹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2007년, 오스 트리아 Museum Rohnerhausin Lauterach에서 열 린 전시회 'Kindheit'에도 포함되었다. 그의 작품은 러 시아의 Museum of Modern Art of Moscow, 미국 의 워싱턴 D.C. 소재 백악관, 독일 Museum Würth in Schwäbisch Hall, 홍콩의 Burger Collection, 영국 런던의 White Cube Collection, 그리고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KunstWerk - Sammlung Klein in Eberdingen, Stuttgart에서 구입했다.

Andy Denzler was born in Zurich, Switzerland in 1965 where he still resides. Denzler graduated with a Masters in Fine Arts from London's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2006. His paintings present his own perception of the world. They are created as snap-shots, blurred and distorted movements, freeze-frames, which stylistically combine Photorealism with Abstract Expressionism. At once a paused film still and an exercise in sweeping abstraction. The result somehow suggests an action scene that is frozen at a chosen moment in time. Denzler achieves the unique and specific aesthetic of his paintings by applying alternative layers of thick impasto detail with flowing horizontal brush strokes. In his work Denzler also frequently alludes to other media, with his titles and subject matter often referring to cinema. His 'Motion Painting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Portraits', 'History Paintings', 'Figures and Landscapes' and 'Urban Figures' translated into painting, drawing and sometimes sculpture. Denzler'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multiple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Europe and America. In 2007, he was included in the exhibition 'Kindheit' (Childhood) at the Museum Rohnerhausin Lauterach, Austria. His work has been acquir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of Moscow in Russia,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A, the Museum Würth in Schwäbisch Hall, Germany, the Burger Collection in Hong Kong, the White Cube Collection in London, UK and the KunstWerk -Sammlung Klein in Eberdingen, Stuttgart, Germany.

Flower Composition VI, 2016
Oil on canvas . 120 x 140 cm | 47.2 x 55.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Lita Cabellut 리타 카벨뤼 (b.1961)

Lita Cabellut는 1961년 스페인 '사리녜라'에서 태어났 다. 12세 때에 입양되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는 길거리 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그녀는 Prado Museum에서 벨 라스케스, 고야, 프란스 할스의 그림을 어린 나이에 접 했고, 이것은 미술가가 되려는 그녀의 결정에 큰 영향 을 미쳤다. 또한, 어린 Cabellut는 고향의 교회와 성당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레스코화를 아주 좋아했다. 그 녀의 첫 번째 개인 전시회는 17세 때에 바르셀로나의 Town Hall of Masnou에서 열렸다. 그리고 19세가 되 던 해에 고향 스페인을 떠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Rietveld Academy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현재 까지도 암스테르담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Cabellut의 초대형 인물화에는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 법과 현대적인 유화 기법이 잘 융합되어 있다. 그녀의 독특한 화법은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질감을 만들어 낸다. Cabellut는 서울, 시애틀, 뭄바이, 델리, 도쿄, 베 를린 및 덴보쉬 등 전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 었다. 최근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라꼬루냐'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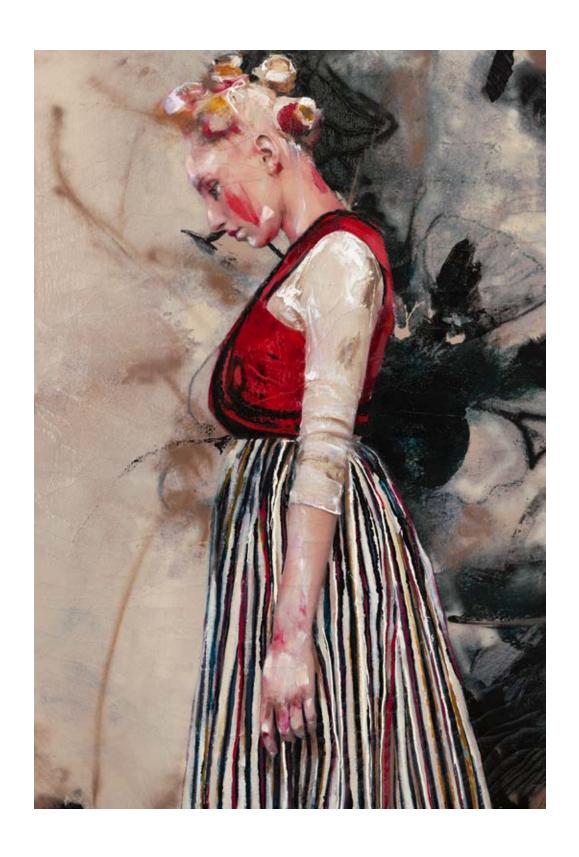
Lita Cabellut was born in Sariñena, Spain, in 1961. As a child, she lived homeless on the streets until she was adopted at the age of 12. She recalls an early introduction to the paintings of Velázquez, Goya and Frans Hals, at the Prado Museum, as having a profound influence on her decision to become an artist. In addition, the young Cabellut became inspired by the ubiquitous fresco paintings that adorned the churches and chapels in her hometown. Her first solo exhibition was held at the Town Hall of Masnou, Barcelona at the age of seventeen and at nineteen, she left her native Spain to study at the Rietveld Academy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She continues to live and work in Amsterdam to this day. Cabellut's large-scale painted portraits incorporate traditional fresco techniques alongside modern applications of oil paint. Her unique technique gives her work an inimitable textural quality. Cabellut has exhibited her paintings worldwide including museums in Seoul, Seattle, Mumbai, Delhi, Tokyo, Berlin and Den Bosch. Most recently, two major solo exhibitions in Barcelona and La Coruña Spain are celebrating her works.



Mixed media on canvas . 215 x 145 cm \mid 84.6 x 57.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David Kim Whittaker 데이비드 킴 휘태커 (b.1964)

David Kim Whittaker는 영국 '콘월'을 기반으로 한 현대미술가 이다. Whittaker의 작품은 캔버스나 패널 위에 혼합매체로 작업하는 작품과 콜라주를 통한 작업, 때로는 집합된 '정물 / 초상' 조각들로 이루어 집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하게 표현된 구상적인 요소들과 추상 적으로 표현된 요소들이 조화로운 충돌을 일으키고 있 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Whittaker의 작품 대부분 은 인간의 머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에 근거를 두 고 있다. 개인과 우주를 표현하려는 그의 인물화는 사 뭇 모호하다. 작품들은 종종 외적 내적 평온함과 충돌 상태가 교차되면서 강함과 연약함, 의식과 무의식, 남 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의 이중적 상태를 찾아볼 수 있 다. Whittaker의 작품에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충돌의 보편적 상태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더욱 크게 표현하 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Whittaker의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과 개 인적 노력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David Kim Whittaker는 2017년 밀라노 Fondazione Mudima 에서 열린 그의 단독 전시를 포함하여 해외 여러 곳에 서 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곳의 박 물관과 예술재단, 국제적인 컬렉터들에 의해 소장되 고 있다. David Kim Whittaker는 2011년 영국에서 열린 National Open Art Competition에서 Towry Award(1등상)을 수상한바 있다.

David Kim Whittaker is a British contemporary artist based in Cornwall, England. Whittaker's artworks consist of mixed media paintings on canvas or panel, painted studies incorporating collage and occasional assemblage 'still life/portrait' sculptures. Whittaker's artworks are a harmonised conflict of delicate figurative and expressive abstract elements. A self-taught artist, most of Whittaker's painted compositions are based upon a meta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human head. Whittaker's portraits are ambiguous, with the ambitious aim of representing the totality of the human condition, both the universal alongside the personal. The works often juggle dual states of inner and outer calm and conflict, offering a glimpse of strength and fragility, the conscious and the subconscious, the masculine and the feminine. These universal states of conflict clearly identifiable in Whittaker's works are arguably reinforced by Whittaker's 'gender dysphoria' and the personal struggle with a condition that he/she has learned to live with through painting and the endeavour of expressing something bigger than oneself. David Kim Whittaker's exhibitions have been held internationally, notably including a solo exhibition at the prestigious Fondazione Mudima in Milan in 2017. The artist's works are in numerous museum collections, art foundations and international private collections. Whittaker was further acknowledged in 2011 as the recipient of the Towry Award (First Prize) at the National Open Art Competition in the UK.

The Paranoia Diva. 2017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Oil and acrylic on canvas . 122 x 122 cm $\,$ I $\,$ 48 x 48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Sittiphon Lochaisong 시티퐁 로차이송 (b.1991)

Sittiphon Lochaisong(일명 'Bomb')은 1991년 태국 ' 마하사라캄'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국 방콕의 Silpakorn 대학교를 졸업했고, 시각미술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 위를 받았다. 그의 그림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바 라본 태국 전통 예술이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선명하 지 않은 점들이 모여서 구현되는 인물과 상징물이 상상 과 감각을 만나 자유롭게 떠다니는 별들의 장관(壯觀)을 보여준다. 자연스러운 섬세함을 통해 복잡하고 극단적 인 존재의 모습 즉, 탄생과 삶과 죽음과 영생을 표현하 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Lochaisong의 희망 은 관람객들이 자신들의 복잡하게 얽힌 존재에 대해 되 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 은 멈출 수 없는 자연의 힘과 광활함, 그리고 그 안에 존 재하는 자신의 위치를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 그가 그리는 추상적인 '우주'는 관람객이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는 곳으로, 여기에서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층 확실 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Sittiphon Lochaisong, alias 'Bomb', was born in Maha Sarakham, Thailand, in 1991.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Silpakorn, Bangkok, Thailand, with Bachelor and Master of Arts degrees in visual arts. His paintings are a subtle combination of traditional Thai spiritual influence combined with his own unique vision. Ambiguous dots are joined and assembled creating free-floating stellar-scapes where figures and symbols meet with imagination and sensation. The spontaneous combines with delicacy, reflecting and embracing the complex and extreme nature of existence - a place of birth, life, death and the eternal. Lochaisong's hope is to create paintings that have the potential to motivate the viewer to examine their own interconnected existence: where one can consciously perceive the unstoppable propulsion and expanse of nature and their place within it. His abstracted 'universes' are a place where the viewer is compelled to concentrate, and rewarded with a glimpse of a deeper understanding of a greater truth.



Tempera powder on canvas . $150 \times 150 \text{ cm}$ I $59.1 \times 59.1 \text{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Li Tianbing 리티엔빙 (b.1974)

Li Tianbing은 1974년 중국 '구이린'에서 태어난 중국 의 미술가이다. Li Tianbing은 베이징의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공부했고, 2002년에 파리의 Ecole des Beaux-Arts를 졸업했다. 1996년 Ecole des Beaux Arts에서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건 너간 Li Tianbing은 중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자신의 정 체성을 찾아나갔다. Li Tianbing의 작품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의한 문제, 가족의 개념 등 현대 중국 사회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포 착하여 새롭게 해석하거나 중국이 시행했던 정책 중 가 장 논란이 많았고 과도했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 Tianbing은 숨막히는 사회와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 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한 가상의 세계와 현실 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자신의 과거와 다문화 경험을 표현하는 매체로 사진을 이용하면서, Li Tianbing은 유 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영원한 이중성으로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현재 중국의 대조적인 모습 즉 동양과 서 양,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고대 문화와 현대 소비자지상 주의가 교차되어 있다. 전도유망한 중국 출신의 미술가 중 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Li Tianbing의 작품들 은 베이징의 Today Art Museum, 상하이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베이징의 National Museum of Fine Arts, 그리고 스페인의 Instituto Valenciano de Arte Moderno에 전시되어 있다. 현재는 베이징과 파리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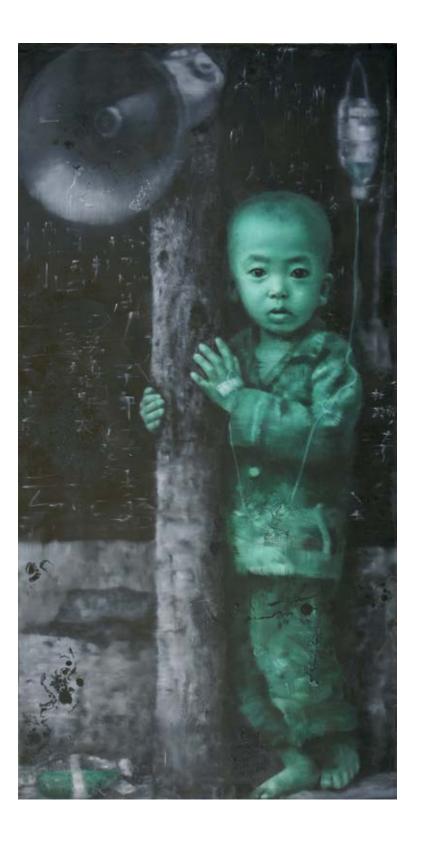
Li Tianbing is a Chinese artist born in Guilin, China in 1974. Li Tianbing studied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Beijing before graduating in 2002 from the École des Beaux-Arts in Paris. As Li Tianbing moved to Paris in 1996 to study art, he kept searching for his identity, travelling back and forth to his home country seeking to seize it better. Li Tianbing's work reflects on the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like the consequences of the single child policy or the conception of family. The artist tries to recapture and reimagine what he can of his childhood and explores the human consequences of perhaps the most controversial and far-reaching social policy China has decreed - the One Child Policy. Li Tianbing explores fiction and reality haunted by selected childhood memories in a suffocating society and charged political setting. Using photographs as a medium to illustrate his reflections on the past and his multicultural experiences, Li layers the present using oil painting in a timeless duality. His composition interweaves the contrasting themes of China today: East and West, communism and capitalism, ancient culture and modern consumerism. Now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ly acclaimed Chinese artists of his generation, a selection of the exhibitions Li has participated in include: Today Art Museum, Beij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anghai; National Museum of Fine Arts, Beijing, China and Instituto Valenciano de Arte Moderno, Spain. The artist lives and works in both Beijing and Paris, France.

Haut-parleur de l'hôpital, 2008

Oil on canvas . 200 x 100 cm | 78.7 x 39.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Marc Sijan 마크시잔 (b.1946)

Marc Sijan은 1946년 세르비아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미 국 밀워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Marc Sijan은 극사 실주의적인 자신만의 인물 묘사 기법으로 가장 혁신적이 고 기술적으로 정교하면서도 작품 활동이 활발한 조각가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Marc Sijan은 이 장르에서는 최고 권위자이다. 1968년에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에서 미술교육 박사학위를 받 았고, 1971년에는 해부학과 생물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과 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Sijan의 세밀한 창작 작업은 실 제 모델에서 따오는 석고 금형 제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런 다음, 확대경을 이용하여 금형 내부를 치밀하게 조각하 여 레진을 붓는다. 그리고 유성 물감과 니스(varnish)를 여러 겹으로 발라 실제와 똑같은 피부 색깔을 만들어내는 데, 6개월이 걸려야 완성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탄생한 작 품은 거의 진짜 사람처럼 움직일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본주의가 바닥에 깔려있는 Sijan의 작품은 전하는 메시 지가 없고 인간적인 감정이 없고 정치적 가치가 없는 기 존의 극사실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사회에서 흔 하게 버림 받은 사람들 즉, 막일하는 노동자, 청소부, 뚱뚱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범한 것을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다. Sijan은 이들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 피부의 모공, 벗겨진 머리, 검버섯, 흉터 등을 거침없이 드 러낸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 면서 그의 조각 작품은 우리들 누군가의 모습, 있을 수 있 는 사람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모아 보여주고 있다. Marc Sijan의 작품은 워싱턴 DC의 Smithsonian Museum of Modern Art,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Philadelphia Museum of Modern Art 및 Milwaukee Art Museum 등 전세계 갤러리, 미술관 및 특별 전시회 에서 소개되고 있다.

Marc Sijan was born in Serbia in 1946, and now works in Milwaukee, USA. Marc Sijan's unique version of hyperrealistic portraiture has situated him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technically sophisticated and prolific American artists working today. He is in fact rated number one in his genre. Sijan received his BA in Art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 in 1968, and went on to earn his Master of Science in 1971, undertaking an intense study of anatomy and biology. Sijan's meticulous creative process begins with the construction of a plaster mould from a live model. He then uses a magnifying glass to sculpt the interior of the mould in order to assure accurate detail, before casting the figure in resin. Realistic flesh tones are then achieved with multiple layers of oil paint and varnish, a process that takes around six months to complete. The resulting creations are so lifelike as to almost be on the verge of movement. Communicating a deep sense of humanism, Sijan's work strays away from the traditional rules of hyperrealism in its exclusion of narrative elements, human emotion and political value. The artist depicts people often overlooked by society: blue collar workers, cleaning staff, the overweight, turning the ordinary into inexplicable works of art. He does not shy from showing their imperfections, from the pores in the skin and tiny hairs, to age spots and blemishes. In Sijan's version of hyper-illusion, his sculptures become tender amalgamations of the elements that comprise each and every one of us, tangible stories from the gamut of humanity. Marc Sijan's creations have been featured in galleries, museums and special exhibits all over the world. They include the Smithsonian Museum of Modern Art in Washington D.C.,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the Philadelphia Museum of Modern Art and the Milwaukee Art Museum.



Polyester resin and oil painting \cdot 114.3 x 66 x 53.3 cm \cdot 45 x 26 x 2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Robert Combas

Robert Combas, Painter

로베르 콩바스는 화가다. 그 단어가 갖는 모든 의미를 고려할 때 그렇다는 얘기다. 시트나, 패널, 악기 혹은 가구, 무엇이든지 그가 손을 올려 놓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화가를 위한 도구가 된다. 그의 작업은 한편으론 탐욕과 관능미가, 또 다른 한편으로 아량과 유머가 섞여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명성 있고 작품 컬렉션이 많은 아티스트 가운데서도 그의 명성은 유독 빛난다. 뿐만 아니라 온화한 성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그가 보여주는 사적·공적의 확고한 태도와 장황하지만 미묘한 언어들, 변화무쌍하면서도 저돌적인 작품, 평범하면서도 영웅적인 테마, 열정이 담긴 한없는 붓놀림, 화려하고도 풍성한 색채에는 그가 지닌 관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지극히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예술에 대한 열린 자세와 배움에 열정적이었던 로베르 콩바스는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항구도시 세테(Sète) 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들이 드로잉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자 부모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루 종일 드로잉을 했고 멈춘 적도 없었다. 6,7살이되었을 때 부모님이 미술학교(School of Fine Arts) 입학을 권유해서 그 후로 23세까지 거기서 생활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성화가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또래 10대들처럼 만화와 록음악을 즐겼다.

그가 수학한 몽펠리에 미술학교(Montpellier's School of Fine Arts)는 포스트-1968 정신을 자부하는 전형적인 프랑스 지방 학교로 교사들은 지나치게 아카데막하거나 아니면 쉬포르/쉬르파스 그룹(Supports/Surfaces Group)이나 개념미술 혹은 미니멀리스트의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때가 1977년이었는데 나는창의력 넘치고 유행을 선도하는 청년들을 접했다. 시대는 펑크가 대세였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만화에 열광했다. 미술학교에서는 쉬포르/쉬르파스 아니면 교사로부터 다소나마 영향을 받은 한물간 무더기의 히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 밖의 인물들이 되었

Robert Combas is a painter. He is a painter in all senses of the word, a painter who covers up everything on which he is able to put his hands, be they sheets, panels, objects, musical instruments, furniture, etc., and he does so with greed and voluptuousness, with generosity and humour. He boasts a reputation among the best-known and most-collected artists in France today, and his warm personality is only one of his many features. His generosity is reflected through his firm personal and public stands, his rambling yet subtle speech, his diversified and invading work, his ordinary and heroic themes, his energetic and limitless brushstroke, his radiant and lush colours...

Born in an extremely simple environment, but open to art and keen to learn about it. Robert Combas spent his youth in Sète, a Mediterranean seaport located in Southern France. He had an innate gift for drawing and his parents encourage him in that field. "I used to draw all the time, almost instinctively, automatically. I never stopped, and when I was 6 or 7, my parents told me that I should register at the School of Fine Arts... Hence, I stayed there until I was 23... I was not really happy to be there, but if my parents had not pushed me, I would probably not have done anything by myself." As all teenagers of his generation, he enjoyed comic strips and rock music.

He studied at Montpellier's School of Fine Arts, a typical French provincial school boasting a post-1968 mentality, with teachers, either too academic or under the influence of the Supports/Surfaces Group, conceptualists and minimalists. "That was in 1977, I was in contact with young and switched-on people who had a certain degree of creativity. The times were slightly punk, and many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were comic-strip fans. At the School of Fine Arts, everybody had deserted except a bunch of oldfashioned hippies more or less influenced by Supports/Surfaces or their teachers. I had chosen painting, and towards the end of the first year, I told myself that I had to do something new. I looked at what I was doing battles - and I said that I should do as I used to when I was just a kid: a battle on a larger

다. 나는 회화를 선택했고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건 바로 -전쟁-이였다. 그리고 난 말했다. 어릴 적 했던 대로 하자고: 펜으로 끄적거린 낙서가 아닌 이번엔 페인트로 더 큰 규모의 전쟁를 치르자고 말이다. 그리고는 탁자에 앉아 그림 3점을 그렸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고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 난 늘 전쟁이 많았다. 난 연습장에 펜을 휘갈기며 낙서를 했고 첫 캔버스들을 바타이유 카우보이즈 콩트 앵디엔(인디언과 싸우는 카우보이들), 자포네 콩트아메리캉(일본인 vs미국인), 바타이유 나발(해전) 등으로 불렀다[…]난 언제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길 원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댄디 하다고 보는데 그건 진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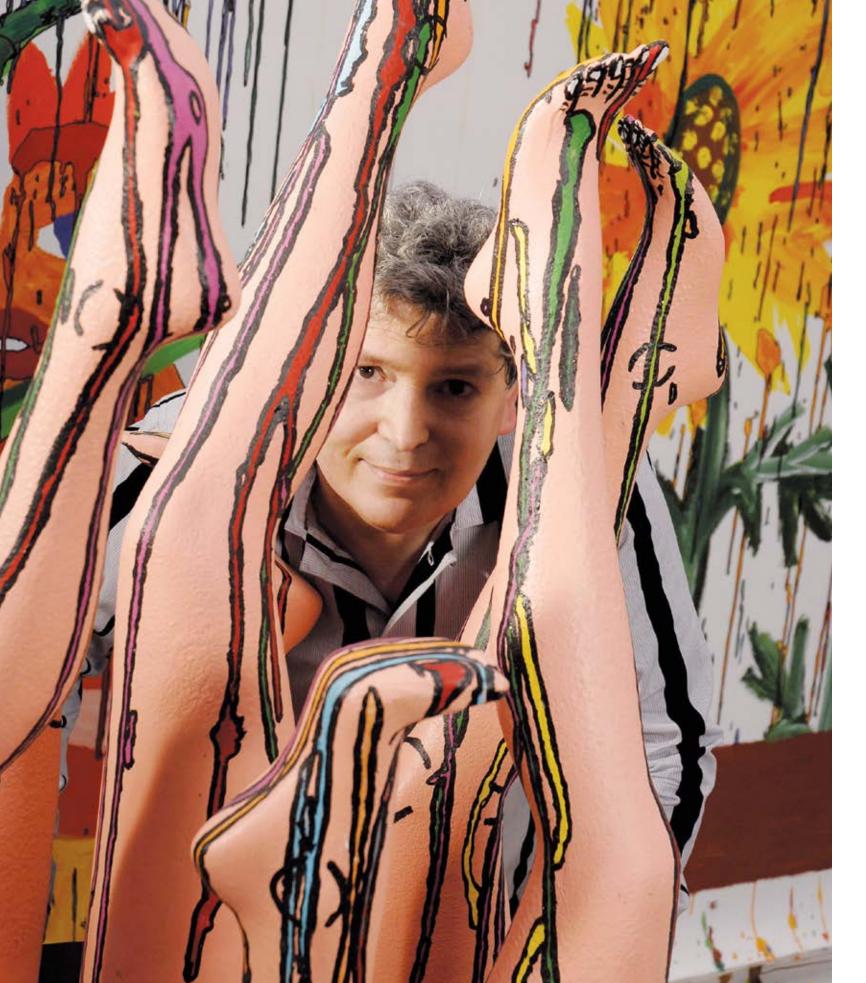
콩바스의 작품은 전통적인 학교의 성격의 작품들과는 대치 되는 것이었으며 그가 졸업하던 해에 주목을 받았 다. "결과적으로 생떼띠엔느(Saint-Étienne)에선 생떼 띠엔느 미술관장인 베르나르 시송을 포함한 패널의 심 사를 통과하면서 회화로 학위를 취득했다. 관장은 내 작 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해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Après le classicisme(고전주의 그 후)라는 전시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고 이유를 묻자 나와 같은 유형의 작품을 하 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라고 대답하면서 내 그림이 이탈 리아 트랜스 아방가르드(프란체스코 클레멘테, 밈모 팔 라디노...), 독일 New Fauves(신표현주의, 마틴 키펜베 르거, 요르그 임멘도르프...)와 닮은 면이 많지만 이들 의 작품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시회에 참 가한 나는 브루노 비숍베르거, 다니엘 템플론(두 사람 모 두 유명 畵商이다)을 알게 되었고 작품을 관심 있게 보 고 그 중 몇 점을 구입한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은 가까이에 있었고 연이어 빠른 속도로 전시회 일 정이 잡히기 시작했다. Après le classicisme (고전주 의 이 후)의1980년 생떼띠엔느 산업미술관을 시작으 로 최초로 Figuration Libre(자유 구상) 작품 4점을 scale and with paint in total opposition to my doodles with a pen. I sat at a table and did three paintings.

"Everything started there, with a return back to my childhood days [...] I always did a lot of battles, because when I was little, I would scribble graffition my exercise books. My first canvasses were called *Bataille de cow-boys contre Indiens* (Cowboys Fighting Indians), *Japonais contre Américains* (Japanese Versus Americans), *Bataille navale* (Naval Battle), etc [...] I had always wanted to do something entirely new, I had always felt the need to be different from others, I truly consider myself to be a dandy."

Combas' works were at counter-current with conventional - but actually quite comfortable - academic productions and were noticed the same year he graduated. "Consequently I obtained my degree in painting at Saint-Étienne in front of a panel that included Bernard Ceysson, Director of the Saint -Étienne Museum. He liked my work a great deal and suggested that I participate in an exhibition called Après le classicisme (After Classicism) at the museum. When I asked him why he did, he replied that there were not enough people doing my type of work; he also added that my paintings resembled very much those of the Italian Trans-Avant-Garde (Francesco Clemente, Mimmo Palladino...) and the German New Fauves (Martin Kippenberger, Jörg Immendorff...) and yet, stood apart from them. I took part in the exhibition where I met Bruno Bischofberger, Daniel Templon (two famous artdealers) and other people who not only studied my canvases with interest, but also bought some."

Success was at hand and exhibitions started to follow each other very rapidly, first in 1980 at the Saint-Étienne Museum of Art and Industry, with Après le classicisme (After Classicism); then Finir en beauté (Ending Up in Beauty), in 1981, at the residence of art critic Bernard Lamarche-Vadel, who gathered the four painters of Figuration Libre (Free Figuration) for the first time: Rémi Blanchard, François Boisrond, Robert Combas and Hervé Di Rosa [attending the



수집한 미술 평론가 베르나르-라마쉬-바델의 저택에서 1981년에 열린 Finir en beauté (美로의 귀결): 레미 블랑샤르, 프랑스와 부아스롱, 에르베디 로자[전시회참석자: 까뜨린느 비올레, 장-샤를 블레이즈, 장-미셸알베로라] 및 Deux Sétois à Nice(니스, 세테에서 온두 사람), 이들의 작품을 별도로 부르고자 Figuration Libre(자유 구상)라는 용어를 만든 벤 보티에르가 조직한 전시회 등을 들수 있다. 이후 콩바스는 파리현대미술관 전시회Ateliers 81-82 (Workshops 81-82)에서 그가 이끄는 그룹 "Les Démodés"로 큰 성공을 거두다."

그의 작품은 가장 유명한 갤러리들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1982년 초에는 프랑스의 이봉 랑베르 갤러리에서 그리고 해외에선 1983년 초 뉴욕의 레오 카스텔리갤러리에서 선을 보였는데 카스텔리는 콩바스가 키스해링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1985년 유달리 적극적이며 대담한 미술관 3곳: 생크로와 애비미술관(Les Sables d'Olonne, 프랑스), 헤멘테미술관(Helmond, 네덜란드), 산업미술관(Saint-Étienne, 프랑스)에서 콩바스의 첫 회고전을 기획하였다.

상대적으로 외딴 곳에서의 창작활동, 심지어는 사회 생활과 유행의 물결로부터 은둔하다시피 한 콩바스는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의 작업이 남과 다른 것은 바로 진정성에 있다. 콩바스의 마음가짐 혹은 태도는 민주적이며 사교적인 동시에 시야가 넓지 못한(편협한) 복수심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성공, 유행이나 이것의 확산을 지향했던 워홀과는 정반대다.

로베르 콩바스의 작품은 인용 글귀(그는 코브라, 날 것의 미술, 다다, 팝아트를 무작위로 흡수했다), 아방가르 드사상,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조롱과 반 영웅주의(찰리 브라운, 스누피, 로버트 크럼의 고양이 프리츠), 아이러니와 무례(Reiser; 하라 키리의 쇼롱 교수와 카바나; Gotlib in l'Écho des savanes), 전통문화(중세 성구함, 로마네스크 벽화, 고딕양식의 스테인드창, 페르시아미니어처)로 부터 자양분을 얻었고 즉흥성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함께 일체의 충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이 무심한 아방가르드적 원칙을 패러디의 키치 미술과 융합시키고자 하는 도시적·원시적 양심의 사회적 표현으로 노골적인 대중에 대한 반문화를 반영한다.

exhibition were: Catherine Violet, Jean-Charles Blais and Jean-Michel Alberola], as well as *Deux Sétois à Nice* (Two People from Sète in Nice), an exhibit organised by Ben Vautier who coined the term Figuration Libre to qualify their work. Then followed *Ateliers 81-82* (Workshops 81-82) at the Paris Museum of Modern Art where Robert Combas achieved great success with his group, Les Démodés.

His works are shown in the most famous galleries: in France, at Yvon Lambert's as early as 1982, and abroad, in New York, as early as 1983, at Léo Castelli's, who considers him to be a very good painter, even better than Haring. Finally, in 1985, the first retrospective was organised by three particularly active and courageous museums: the Museum of the Sainte-Croix Abbey (Les Sables d'Olonne, France), the Gemeente Museum (Helmond, Netherlands) and the Museum of Art and Industry (Saint-Étienne, France).

Working relatively isolated, even secluded, from the world of crazes and society life, Combas has protected himself. His work is different mostly by its integrity. His attitude could be qualified as a democratic, social and provincial revenge. It is diametrically opposed to that of Warhol, which revolves around the idea of communication, social success, fad and widespread diffusion.

The work of Robert Combas, nurtured by quotations, avant-garde thoughts (CoBrA, Raw Art, Dada, Pop Art, to quote them haphazardly as he absorbs them), underground culture for its mockery and anti-heroes (Charlie Brown, Snoopy, Fritz the Cat by Robert Crumb), caricature for its irony and disrespect (Reiser; Cavanna and Professor Choron in Hara Kiri; Gotlib in l'Écho des savanes), traditional culture (Medieval phylacteries, Romanesque wall paintings, Gothic stained windows, Persian miniatures) is characterised by its rejection of any allegiance and by the constant attraction for improvisation. It is the social expression of an urban tribal conscience fusing a parody of kitsch art, with perverted avant-garde principles to which he remains indifferent. It reflects the anti-culture of the broadest public.

His work stands out by the colour and the black contour of his figures, effervescence

그의 작품에선 색채와 인물의 블랙 윤곽, 활기, 생명력, 기쁨과 행복한 광기, 아이러니와 패러디, 내용과 형식 사 이의 서열 폐지, 크기와 관점의 부재, 얽힘과 구분의 부 재가 두드러진다.

"내게 있어, 회화는 아프리카의 천진한 출판물들, 초등학교 교과서의 그림, 피카소와 미로 혹은 이들이 혼합된만화 드로잉, 아랍 서체, 뒤뷔페나 코브라 스타일에서 볼수 있는 거친 드로잉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 구상은 원시적 본능을 부정하지 않는 회화로 끊임없는 문화 탐색을 표현한다."

"다다이즘, Raw Art, 흑인 미술, 아이티, 아프리카, 남미, 자메이카 등지의 출판된 천진난만한 화가들, 락&롤문화, 예외와 부조화의 미술(Exceptional and Misfit Art), 피카소, 표현주의, 인상주의, 만화, 이 모두를 잘섞으면 최종 결과물은 콩바스가 된다: 나는 재현하는 화가다. 이유는? 내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그림의 메시지는 본래적으로 추상이다. 그것은 회화의 한 형태로 이미지와 컬러, 아시아, 아랍, 남미의 엉터리 서체가 서로 뒤섞이며 보편을 지향한다."

"때론 추상표현주의처럼 나 역시 캔버스에 물감을 붓는다. 구상 회화는 재미있고 사물에 대한 나의 현실적인 면을 재현해 준다: 초기에 그것은 1970년대 중반 미술계의 지적 회화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나는 노동자계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2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다. 내그림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있다: 처음에 그것을 에너지형태를 구성하는데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싶기 때문이다. 연재만화에선 아티스트가 캐릭터의 방해를 받지만 회화에선 포맷과 관련해서조차 나는 완전히자유롭다. 내 그림은 대단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겐정직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콩바스 작품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성과 색채의 순수성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은 즉각적으로 야수 파를 떠올리게 한다. Fauve(야수)는 우선 시대적으로 매 우 정확한 기간과 함께 유명한 화가 집단으로 특징 지을 수 있지만, 동시에 고대, 고전적인 혹은 바로크적인 등의 단어와 같이 그들 중 하나를 언급하는 예술가가나 작품 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의 작품은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전쟁이나 성인들의 진짜 전쟁 속 폭력과 사랑, 일반적으로 타인

and vitality, joyous and happy frenzy, irony and parody, the abolition of all hierarchy between content and form, the absence of volume and perspective, entanglement and compartmentalisation.

"For me, a painting may be influenced by African naïve publicists, by the illustration of primary-school books, mixed with Picasso or Miró, or else by comic-strip drawings, plus Arabic calligraphy, plus a raw painting very much in Dubuffet's or CoBrA's style. Free Figuration is a painting that does not disavow its primitive instincts; it expresses a constant search for culture."

"Dadaism, Raw Art, Negro Art, that of the naïve publicist painters of Haiti, Africa, South America, Jamaica, Naïve Art, Poor Art, rock 'n' roll, Rock Culture, Exceptional and Misfit Art, Picasso, Expressionism, Impressionism, comic strips. Mix everything well together and you obtain Combas as your end result: I am a representational painter, because I live in a world of realities. On the other hand, I find that the message of my paintings is abstract in nature. It is a mixture of images, colours, false Asian, Arabic or South-American calligraphy, a form of painting aiming to be universal."

"Sometimes, I simply throw paint, a form of abstract expressionism. Figurative painting is amusing and represents my down-to-earth side of things; initially, it was a mocking reaction against intellectual paintings of the art world in the mid-70s. Since I was born in a working-class environment, I was living in two different worlds. There are still messages in my paintings: at first, it constitutes a form of energy, because I want to paint what I like. In comic strips, the artist is hindered by the characters, whereas in that sort of painting, I am entirely free even with regard to format. My painting is very free and remains for me a means to remain honest."

The common character of the Combas' work is violence and the purity of colour, features that both refer immediately to Fauvism. The term Fauve characterises first a very precise period in time and a group of well-identified artists, but it is also used to qualify artists or works that refer to either of them, such as the words archaic, Classical or Baroque.

The work is also noticeable by the constancy of certain topics, oscillating between the

에 대해 그가 느끼는 사랑 그리고 혼란, 명상 그리고 분 노 사이에서 자신의 약혼녀에 대해 갖는 사랑과 그 사이 의 동요 등이 눈에 띈다. 또한 그것은 스타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스타일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한편 급작스 런 전개와 새로운 영감 속에서 계속된 변화를 반복한다.

폭력성과 순수한 색채를 지닌 80년대 초반을 젊음과 모더니티의 상징인 "fauve years야수의 해"로 규정할 수있다. 반면, 그 마지막 해는 "최고로 섹스 지향적인 시간들"로 기술 가능한데 특히 1988년 전투로, 이는 콩바스스타일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색채 작업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캔버스 공간 전체를 채우기 때문이다. 블랙 윤곽선이 색채를 둘러쌀 때는 컬러의 드러남을 강조하려는 집착이 깔려있다. "발, 생식기와 함께작은 머리들이 사방에서 용솟음치고 단어들이 밀려들면서 의미는 초월 되고 감각은 폭발한다. 글을 쓰는 것은상징과 상상의 공간 모두가 활기를 띠는 과정에서 이미지에 대한 언어로 되돌려 준다." 그렇게 포화된 공간은암석이나 나무, 천 등에 사람 얼굴이나 동물이 등장하는 15세기 페르시아 미니어처로 나타난다.

콩바스는 평화로운 사랑에서 전쟁으로 다시 시에서 음 악으로 옮겨가며 미술사 전 기간과 모든 주제를 다룬다. 1990년대 초, 교회와 성당, 몇몇 문화 도시(특히 베니 스)를 둘러보며 조각과 스테인드글라스 창과 아이콘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는 문학과 역사(history)와 에스 토테리즘(esotericism)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했고, 중 세시대를 향한 남다른 열망을 키워나갔다. 호기심은 작 품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을 "가장 첫 단계의 영적 기 간"으로 규정한다. 캔버스 배경은 "어둔 밤"마냥 블랙 이다. 새 성령의 불길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재현 하는 줄기들은 부분적으로 캐릭터들을 덮는다. 이 시 기 작품들은 198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1990년 프 랑스 알비에서 각각 선을 보였다. 성서에서 영감을 얻 은 새로운 연작 역시 파리에서 전시되었다. 이처럼 명 백한 영적 갈구는 예배당 크기만한 최대 5미터 길이의 대형 포맷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80년대 말 중세시대나 17세기 바로크시기 벽화를 영락없이 떠올리게 한다. 영 적 갈망은 90년대 초 불교나 기독교 전통과 같은 영적 운동을 표방하는 동양의 다양한 테마 속에서 그리고 중 세 전설이 숨쉬는 분위기에 침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중세 전통문화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 에는 기독교적 영성이 충만한데 이는 중세 민속문화와

violence of either the simulated wars of children or the real wars of adults, and love, the love he feels for others in general and the love he feels for his fiancés in particular, between turmoil, meditation and fury. It is also noticeable through the style, which guarantees consistency, while affirming certain periods generating successively one another in sudden developments and new inspirations, etc.

The early 80s with their violence and their pure colours could be qualified as "Fauve years", the symbol of youth and modernity, whereas the last years could be described as "the most sex-oriented years", especially with battles in 1988, which are very assertive of the Combas style. Works with colour are paramount, because colour fills the entire space of the canvas. A black contour line surrounds it with an obsession that reinforces its appeal. "Small heads perk up everywhere, along with feet and genital organs. Words surge and supersaturate the meaning. Senses explode. Writing yields back speech to images in both the symbolical and actual spaces of the imagination in the process of coming alive." The saturated space refers to Persian miniatures of the 15th century in which appear faces or animals in rocks, trees or clothes.

Combas moves from peaceful love to war, then from poetry to music, and deals with all periods of art history and all subjects. In early 1990, he visited churches and cathedrals, several cultural cities (especially Venice), and scrutinised sculptures, stainedglass windows and icons... He opened up to literature, history and esotericism. He developed a special craze for the Middle Ages. His curiosity influenced his work, and he qualifies himself as "a spiritual period at the first degree". The background of the canvas is black as a "dark night". Paint runs representing falling rain from heaven as flames of a new Holy Spirit, cover characters in part. The works of that period were shown in 1989 in San Francisco and in Albi, France, in 1990. A new series inspired by the Bible was also exhibited in Paris. Such obvious need for spirituality is reflected in the selection of large formats, up to 5 meters, the size of a chapel, which evoke irresistibly as early as the late 80s the mural paintings of the Middle Ages or of the Baroque Period in the 17th century. The spiritual need grows in the early 90s through various themes

기독교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독서, 멀게만 느껴진 교리문답, 보다 높은 것 에 대한 확고한 염원에 대한 기억이 엉켜있는 자화상처 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는 전쟁이라는 토픽에 여전히 충실하며 그 자리에는 폭발하는 색채, 상냥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리고 러브스토리 속 상냥함은 영적 심문으로 변형된다. 2005년 1월 런던 시티 홀에 서 찰스 사치는 비디오와 환경 미술로 대체되면서 사망 한 것으로 간주된 미술의 한 장르인 회화의 "승리"를 위 해 3개의 전시관을 설치했다. 필립 다장이 정확하게 강 조했듯이: "회화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다만 계속될 뿐 이다[…]. 찰스 사치의 입장은[…], 그가 선견지명이 있 는 컬렉터든 아니면 현명한 구경꾼 입장이든 사실상 드 러난 것에 비해 혁신적인 알맹이는 전혀 없다. 2002 년 파리 퐁피두센터는 이와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훨 씬 적은 예산으로 Cher peintre (친애하는 화가에게) 라는 전시회를 기획했다[…]."진짜 문제는 창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시기에서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다. 뉴욕과 베를린의 갤러리와 미술관에선 끊임 없 이 회화전이 열린다. […] 하지만 파리와 런던의 상황은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 기관들이 회화는 죽었다 고 주장함으로써 'fine work정교한 작업'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추종하는 신봉자들의 반대를 유발하는 현대적 교조주의를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도 이런 척박한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듯 하다."

베르나르 블리스테는: "80년대를 새롭게 판단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발생한 현상이 갖는 복잡성과 소위 '신표현주의New Fauves' 속에서 퍼포먼스가 갖는 중요성, 가루스트와 가지오로프스키의 첫 작품들에 나타난 개념을 살펴야 한다. 그 해석은 현재 상황에서 진작되어야 하며 아티스트들은 계속해서 몰리, 키펜베르거, 바스키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많은 이름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기꺼이 로베르 콩바스를 그 명단에 넣을 것이다. 오늘날 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부여하는 일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움과 판타지 그리고 자유를 표현한다.

장-프랑스와 모찌코나찌

through various themes referring to Oriental spiritual movements, such as Buddhism or the Christian tradition, or bathing in an atmosphere of Medieval legends. Works inspired by Medieval folklore are flooded with the same Christian spirituality, since both are closely related. Should they be seen as self-portraits associating memories of childhood readings, a far-remote catechism and an obvious aspiration to something much higher?

He remains faithful to the topics of battles, with explosions of colours, and love for women with both gentleness and tenderness. That gentleness found in love stories transforms itself into spiritual interrogations. At London's County Hall Gallery, in January 2005, Charles Saatchi set up three exhibitions on the "triumph" of a genre that part of the art world deemed dead and superseded by video and environment art: painting. As Philippe Dagen emphasised rightly so: "Painting does not look back, but continues. Charles Saatchi's position, whether as a visionary collector or a wise speculator is actually quite less innovative than it seems. In 2002,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organised an exhibition called Cher peintre (Dear painter) based on an identical idea, but with fewer means. "The real question is not about creation, but its critical reception in various locations and at different times. In New York and Berlin, painting never ceased to be on display in galleries and museums. In Paris and London,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France, cultural institutions support a modernistic dogmatism proclaiming that painting is dead, thus provoking the opposition of faithful devotees to the past in the name of 'fine work' and tradition. Fortunately, such sterile situation now seems to be changing."

For Bernard Blistène: "The time for a new appraisal of the 80s is near: we shall see the complexity of what occurred, the conceptual part of the first works by Garouste and Gasiorowski or the significance of performance in the so-called 'New Fauves'. That interpretation will be promoted by the current situation as artists keep peering at Morley, Kippenberger or Basquiat." Many names could be added. As for myself, I would be most happy to include Robert Combas to that list. Presenting his works today, granting them their place is not only legitimate, but salvaging altogether. They express beauty, fantasy and freedom.

Jean-François Mozziconacci



Portrait, 2017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centre

Acrylic and pastel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 200 x 150 cm $\,$ I $\,$ 78.7 x 59.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Sans titre, 2017

Signed on the lower centre

Acrylic on canvas . 230 x 212 cm | 90.5 x 83.5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Sans titre, 2017

Signed on the centre right

Acrylic on paper . 65 x 100 cm | 25.6 x 39.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ortrait en fond noir approfondi avec tatouage verdâtre de motif floraplantoverto, 2011

Signed on the lower right, dated on the lower left

Acrylic on fabric . 195 x 141 cm | 76.8 x 55.5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Espagnolades. Rubans et rubis, perles et velours. Mes vœux lourds en chapeau et masque, 2016

Signed on the lower centre

Mixed media on paper . 63 x 48 cm | 24.8 x 18.9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Sign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 195 x 114 cm | 76.8 x 44.9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Le Cavalier du Pré Pustule, Le cheval Black baroque Blacos and White and blanc, 2017

Signed on the lower right

Mixed media on canvas . 195 x 96 cm | 76.8 x 37.8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Noële, Noel, Montjoie Saint Denis, 1989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titled on the lower centre Acrylic on canvas laid down on canvas . $214 \times 222 \text{ cm}$ I $84.3 \times 87.4 \text{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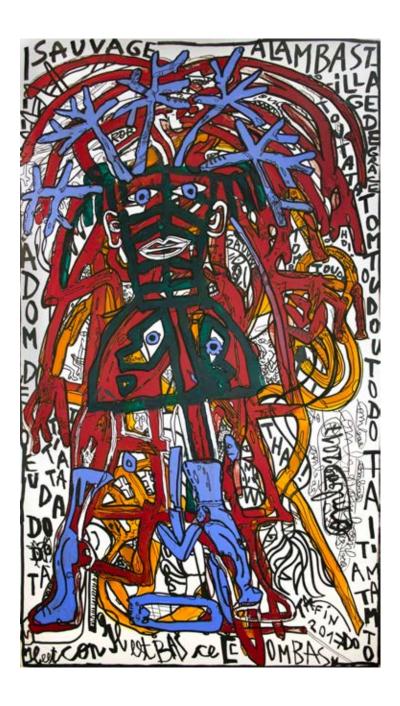
Provenance

Collection Alain Lamaignère, Paris Private collection, Paris





Provenance Artist's studio



Rougette de Suly. La jeune rouge sauvage. Elle est so vage for mi, 2017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titled on the upper centre

Acrylic on canvas . 224 x 125 cm | 88.2 x 49.2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ainted resin, edition of 99 by Jacques Boulan . 99 x 37.5 x 3.5 cm | 39 x 14.8 x 1.4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yramide, 1985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 215 x 150 cm $\,$ I 84.6 x 59.1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rivate collection, Paris

Robert Combas, Biography

Born in Lyon on May 25, 1957, Robert Combas spent his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Sète. He has been working and living in the Paris region since 1981.

SELECTED SOLO EXHIBITIONS

1979

Robert Combas, Hervé Di Rosa and Ketty Brindel create the journal *Bato*, an 'assemblagiste work of art' according to Robert Combas. A collective and hand-made journal, *Bato* is made up of assembly art, sketches, paintings and text. Only four pieces make it to print. With Ketty Brindel and Buddy Di Rosa, Robert Combas then formed Les Démodés, a primitive rock group with Dadaist lyrics penned by Robert. For Combas, Bato and Les Démodés mark the real beginnings of the Free Style movement

1980

Publishing of sketches and illustrations in Sandwich, the weekly art supplement of French daily *Libération*. First personal exhibition with Errata Gallery in Montpellier, May 20 - 27, 1980, including a performance by Robert Combas at the vernissage. Robert Combas gets his Fine Arts degree in Saint-Étienne. Bernard Ceysson, jury member, is struck by the originality of Combas' work and invites him to participate in the expo *Après le classicisme* organised for the end of the year at the Saint-Étienne Museum of Modern Art

1981

Combas, Eva Keppel Gallery, Düsseldorf Combas, Swart Gallery, Amsterdam

1982

Combas, Yvon Lambert Gallery, Paris Combas, Swart Gallery, Amsterdam Combas, Baronian-Lambert Gallery, Ghent

1983

Combas, Buchmann Gallery, Saint-Gall Combas, Léo Castelli Gallery, New York

198

Combas, Yvon Lambert Gallery, Paris Performance painting at the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as part of the television show Bonjour Monsieur Orwell Le combat de Combas, The Chanjour Gallery, Nice Combas, Il Capricorno Gallery, Venice Combas, ARCA, Marseilles (first monograph)

198

Combas, Yvon Lambert Gallery, FIAC, Paris

1986

Combas, Léo Castelli Gallery, New York Le bestiaire de Combas, Yvon Lambert Gallery, Paris

1987

Combas, CAPC Museum of Contemporary Art, Bordeaux Combas, Stedelijk Museum, Amsterdam Combas, Trisorio Art Studio, Naples

1988

Les batailles, Beaubourg Gallery, Paris La guerre de Troie, Yvon Lambert Gallery, Paris Combas, Krings Ernst Gallery, Cologne Combas, Pierre Huber Gallery, Geneva

989

Paintings & Objects, Blue Gallery, Seoul

1990

Combas, Wolf Schultz Gallery, San Francisco Combas, Toulouse-Lautrec, Cultural Centre of Albi & Toulouse-Lautrec Museum of Albi, Blois

199

La bible, Beaubourg Gallery and Les Saints, Yvon Lambert Gallery, Paris; simultaneous release by La Difference Publishing House of a monograph with text by Bernard Marcadé

1992

La mauvaise réputation, paintings inspired by Georges Brassens, and Aquestécop, paintings from 1977 to 1991, Paul Valéry Museum, Sète

1993

Du simple et du double, Paris Museum of Modern Art, Paris

1994

Recent Paintings, the French Institute of the United Kingdom, London L'art italien, Alliance Française, Bologna

1995

La maison Combas, Hall of Mars, Beaubourg Gallery, Paris La musique et touti couinti, The Coprim Foundation, Paris Premières œuvres, Jérôme de Noirmont Gallery, Paris

996

Peintures primitives portugaise, Gallery 1991, Lisbon Tâche de lait, Tashi deleks, Jesuit Chapel, Chaumont Sanguines, Laurent Strouk Gallery, Paris Fantaisies héroïques, Cultural Centre, Fayet Hall, Sérignan

199

Sanguines, Gallery 1991, Lisbon Glitter Portraits, Laurent Strouk Gallery, Paris

1997

Manheim-Paris: Mozart-Combas, Manheim Diou me damné, Macarel, je fais une rétrospective, peintures de 1977 à 1997, Tamaris Villa, La Seyne-sur-Mer Coquin de sort, ça continue, tatouages académiques et peintures sur papier, Napoleon Fort, La Seyne-sur-Mer

1998

Entre deux guerres, Ben-Combas, a historical piece on World War One, Péronne Museum of the Erotic, Paris

1999

Tronches d'habits, Espace Cardin, Paris

2000

Marilyn-Combas, Anne-Marie Dewart Gallery, Brussels Maï Aqui, Paul-Valéry Gallery, Sète Robert Combas, Batailles et guerres dans ses premières œuvres, Cultural Centre La Douve, Langeais

2001

Les années chaudes, les années 80 de Robert Combas, the Cordeliers Convent, Châteauroux Museum

2003

Une expo d'été, Hélène Trintignan Gallery, Montpellier Les vieux dégueulasses, Metropolis Gallery, Lyon

2003

Oeuvres des années 80, Laurent Strouk Pop Art Gallery, Cannes

Cartes à gratter et galerie de portraits, Charlotte Moser Gallery, Geneva

Nouvel atelier, Guy Pieters Gallery, Knokke-le-Zoute Une saison Combas, a trail of exhibitions in Aix

2004

Galerie de portraits, Hélène Trintignan Gallery, Montpellier Combas et le Mexique, Croix

BaragnonCentre,Toulouse

Dernières créations, Guy Pieters Gallery, Saint-Paulde-Vence

Ma peinture c'est du rock, The Artrium, Geneva

2005

Fleurs, personnages, rêves et paysages, Auverssur-mer

Oise Festival, Opus 25, Auvers-sur-Oise En avant la musique, Benedictine Palace, Fécamp Mots d'oreille, Magazzini del Sale, Venice Bonjour, Jan Van der Doogt Museum, Amstelveen Nerf de bœuf et verres brisés, Metropolis Gallery, Lyon

2006

Robert Combas et Spatharis, Fine Arts Kapopoulos, Athens

Œuvres croisées Combas-Kijno, Hélène Trintignan Gallery, Montpellier

Retour aux sources, Hélène Trintignan Gallery, Montpellier

Le rythme du rock, Willy Shoots Gallery, Eindhoven Sacré Combas, Chapel of the Ursulines, Quimperlé Les tatouages académiques, Guy Pieters Gallery, Knokke-le-Zoute

Savoir faire,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7

Savoir faire, Gyeongnam Museum of Art, Changwon Fantastic, Asiana Museum, Daejon Joke'R, The Gallery, Frankfurt Gallery of Modern Art, Modena Combas à Saint-Vincent, Saint-Vincent Church, Mérignac Cinéphage à gogo, Art Centre of La Malmaison Chemin de Croix, Combas-Kijno, Chapel of the Ursulines, Tourcoing

2008

Robert Combas, les années 80 l'invention d'un style, Louviers Museum, Louviers Joke'R, Ludwig Museum, Koblenz Robert Combas, Gana Art Centre, Seoul Chemin de Croix, Combas-Kijno, Chapel of the Gobelins, Paris Qu'es aco?, Vincent Van Gogh Foundation of Arles, Arles

2010

Robert Combas, Fondation Mudima, Milan Robert Combas, Galerie Hélène Trintignan, Montpellier Sans filet, les Goulamas sont de retour, Galerie Guy Pieters, Paris

2012

Retrospective Greatest Hits, Museum of Contemporary Art, Lyon

2013

Pour la couleur c'est au premier étage, Gallery Laurent Strouk, Paris

2015

Combas, Palace of Tau, Reims

2016

Retrospective of Combas' paintings from 1980s an 1990s. Grimaldi Forum, Monte Carlo, exhibition organised by Gallery Laurent Strouk

017

Les Combas de Lambert, Collection Lambert, Avignon

Index

Modern Masters on Paper JEAN DUBUFFET Site avec d Site avec g

FERNANDO BOTERO

Site avec deux personnages, 10 septembre 1981 Site avec quatre personnages, 20 août 1981 8 Site avec quatre personnages, 31 août 1981 9 ALEXANDER CALDER Cattails and Yellow Moon, 1968 11 12 Untitled, 1953 MARC CHAGALL L'Acrobate rouge, 1963-1964 15 PABLO PICASSO Tête de femme, 21 July 1970 17 JOAN MIRÓ Untitled (from Grafikmappe Hochschule St. Gallen), 1967 19 ZAO WOU-KI Untitled, 2003 21 FERNAND LÉGER Étude pour la façade de l'église Notre-Dame..., circa 1948-49 23

La Toilette, 2009

Contemporary Curated Selection

ANDRÉ BRASILIER	Courses en nocturne, 2016	29
MANOLO VALDÉS	Retrato con fondo naranja, 2007	31
WANDLO VALDLO	Fiori, 2015	32
GEORG BASELITZ	DAS MOTIV: 1950, 1988	35
YVES KLEIN		36
I VES KLEIN	Table Monogold TM	
	Table Bleu Klein™	37
ROBERT INDIANA	Love (Gold face - Blue sides), 1966-2000	39
KEITH HARING	Untitled, 1984	41
TAKASHI MURAKAMI	Blue Flower, 2013	43
YOSHITOMO NARA	Right and Left, 1990	45
MARC QUINN	Endless Column (Micro Cosmos), 2008	47
	Sphinx, 2006	48
DAMIEN HIRST	Skull Spin Painting, 2009	51
ANSELM REYLE	Untitled, 2006	53
JEFF KOONS	Balloon Rabbit (Red), 2017	55
	Balloon Monkey (Blue), 2017	56
	Balloon Swan (Yellow), 2017	57
TRACEY EMIN	What Colour is a Kiss, 2015	59
PAIK NAM JUNE	Easy Rider, 1993	61
ANTONIO SEGUÍ	Tecnícolor, 2006	63
TURI SIMETI	Un ovale bianco, 2015	65

PINO MANOS	Sincronico nero cyan quadrato, 2014	67
ALESSANDRO ALGARDI	4.04.2008, 2008	69
UMBERTO MARIANI	Senza titolo, 2016	71
MARCELLO LO GIUDICE	Blu Eden, 2013	73
FABRIZIO PLESSI	Acqua 6, 2016	75
PASCAL HAUDRESSY	Somewhere We Will Meet Again (Heart and Brain), 2010	77
KATRIN FRIDRIKS	Icelandic Syndrome - Dreamliner, 2015	79
ALFRED HABERPOINTNER	W-COLI, 2014	81
ZHUANG HONG YI	A2016-087, 2016	83
JOE BLACK	Power to the People, 2016	85
PAUL ALEXIS	Betty Boop, 2009	87
DAVID MACH	Matisse, 2012	89
	Cheetah, 2012	90
	Sea Whip, 2012	91
MAURO CORDA	Contorsionniste XXIV, 2013	93
ANDY DENZLER	Flower Composition VI, 2016	95
LITA CABELLUT	Elisa, 2017	97
DAVID KIM WHITTAKER	The Paranoia Diva, 2017	99
SITTIPHON LOCHAISONG	Ring Rang Run, 2017	101
LI TIANBING	Haut-parleur de l'hôpital, 2008	103
MARC SIJAN	Seated Guard, 2016	105

Robert Combas

Robert Combas, Painter by Jean-François Mozziconacci	
Portrait, 2017	115
Sans titre, 2017	116
Sans titre, 2017	119
Portrait en fond noir approfondi, 2011	120
Espagnolades. Rubans et rubis, perles et velours,2016	121
Marsupilami Grand Etonapilami, 2017	122
Le Cavalier du Pré Pustule, le cheval black, 2017	123
Noële, Noel, Montjoie Saint Denis, 1989	125
Le Pot de jambes en bouquet de pieds et de mollets, 2004	126
Rougette de Suly la jeune rouge sauvage, 2017	127
Guitare Eddie Cokran, 2005	128
Pyramide, 1985	129

134

Published by Opera Gallery to celebrate Seoul Re-Opening Exhibition, 22 March 2018

All rights reserved. Except for the purposes of review,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Printing: Hyunjin Creative

Co-ordinators: Yoonju Kim, Lou Mo, Tom Masson, Aurélie Heuzard

Design: Joho

